3 -MAY 26
Copy ____ 1959

백 인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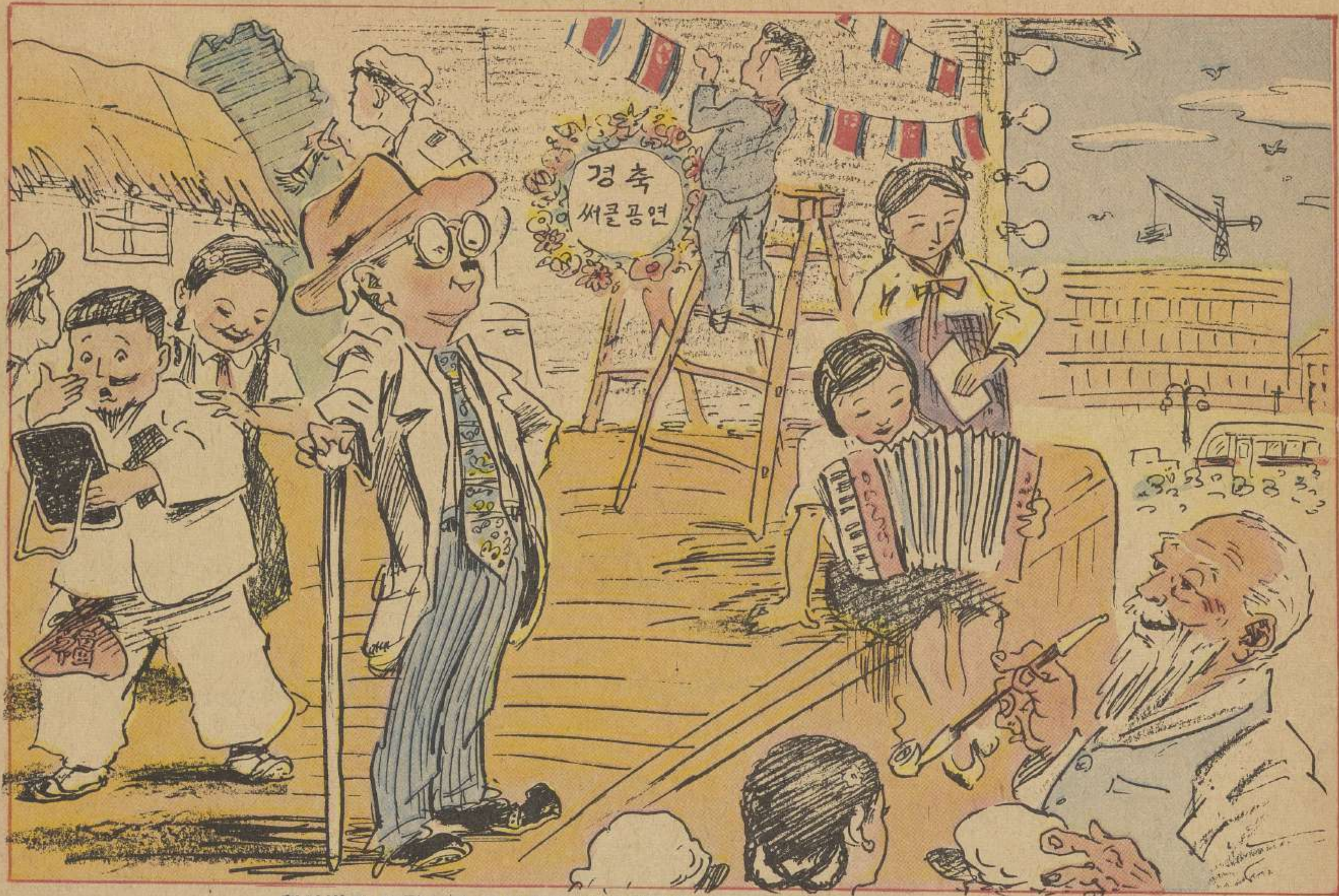
주권을 틀어쥐고 사회주의 락원을 향하여

# 활살

1958년(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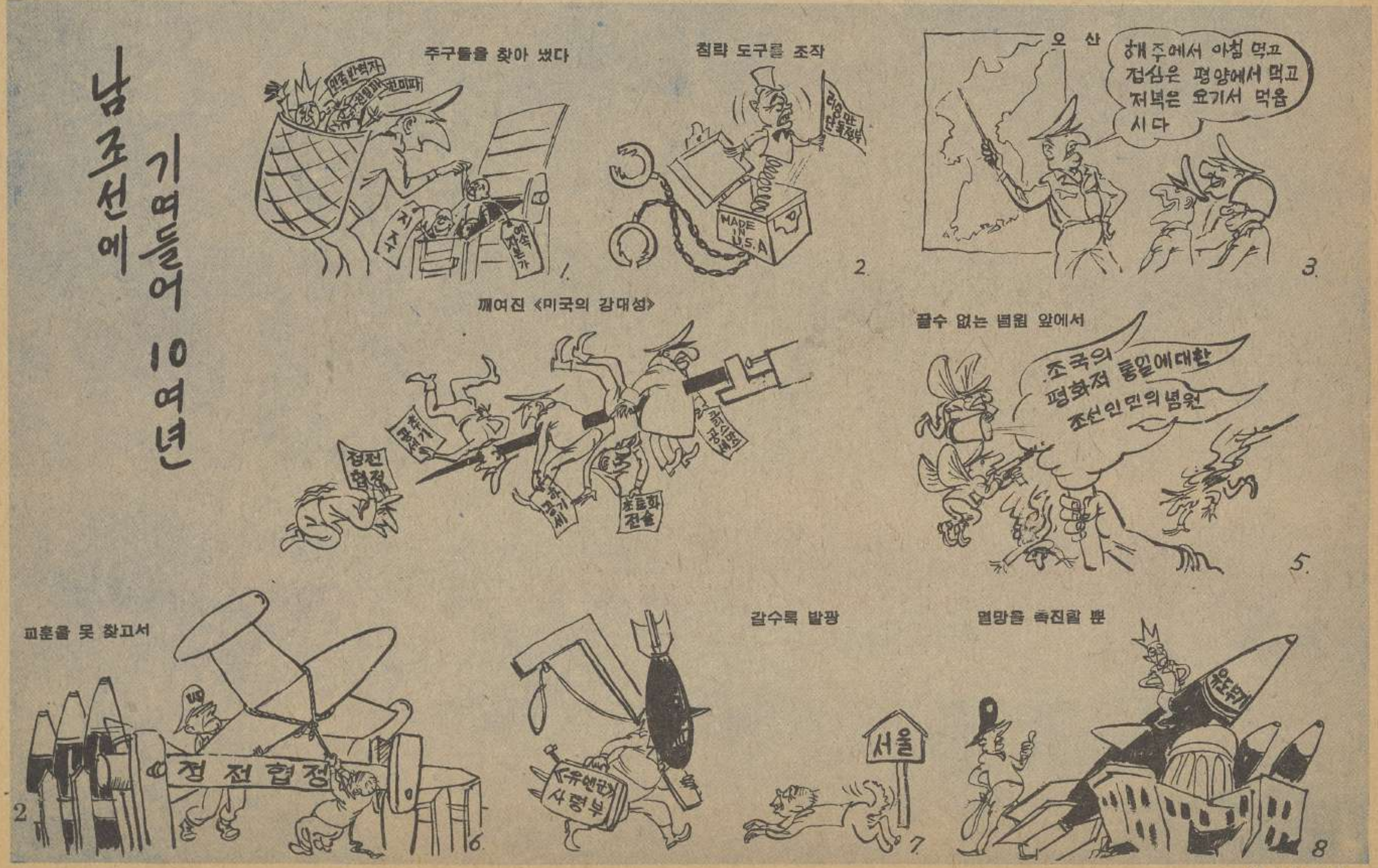
9월호

## 명절을 앞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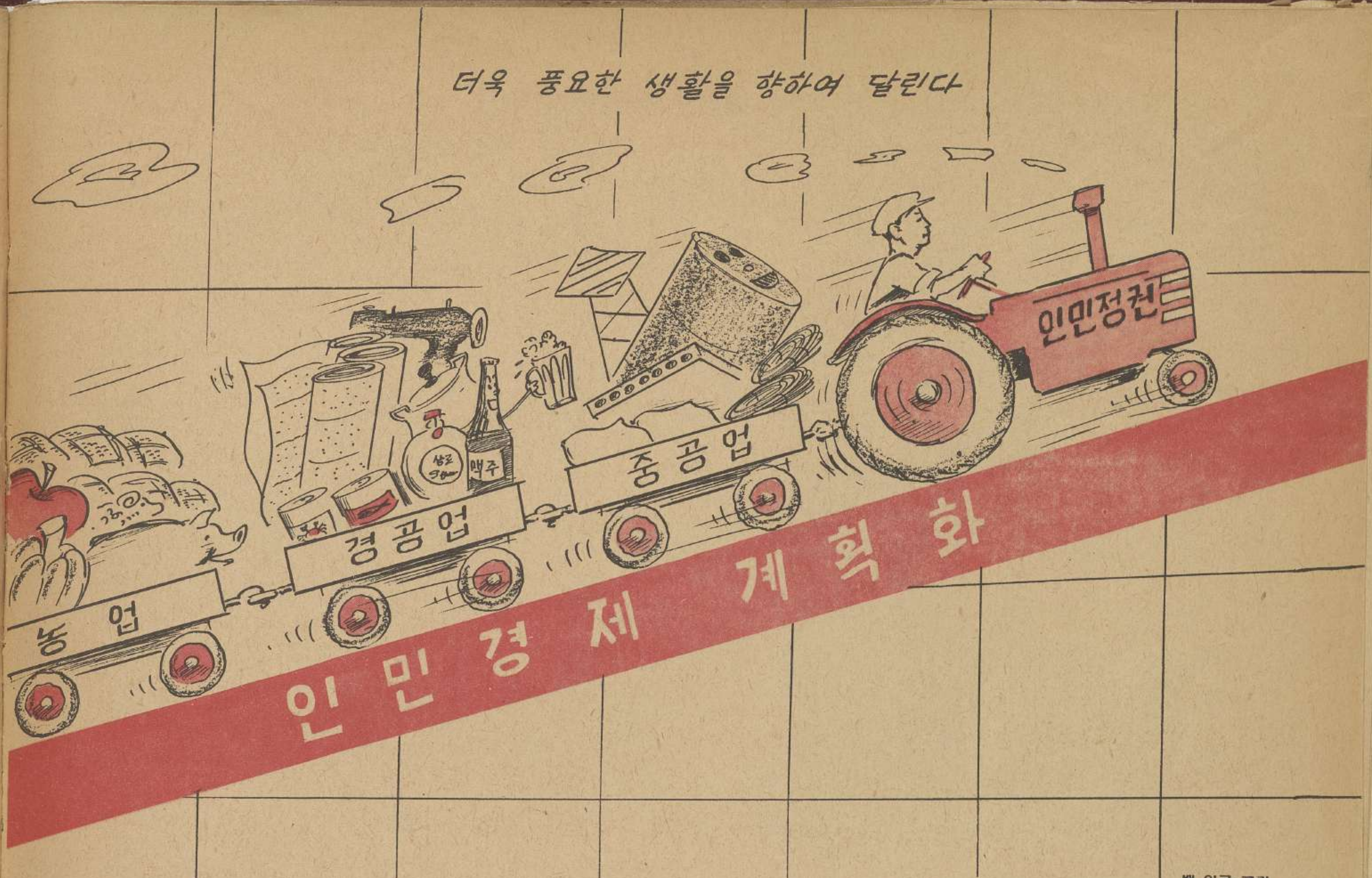



—할아버지 이만하면 자본가와 비슷해요?
—오냐 비슷하다 내가 젊었을때 지주와 자본가에게 구박받던 생각이 나는구나

백 인균 그림




박 승히 그림




백 인균 그림

## 준 사망 상태

—이번에야 추세겠지?
—워낙 속속드리 곯아서…

조 명식 그림

## 괴뢰 국무회의

최 영근 그림

## 거짓말 같은 사실

원 광수 그림

## 직업강도

《또 땅이나 하러 가세》

지서장의 훈시가 끝나자 서장실에서 나온 김 순경은 신이 나서 박 순경에게 속사졌다. 또 재물을 뺏으러 가자는 소리다.

두 놈은 눈에 쌍심지를 달고 골목들을 싸다녔다.

《옳지 됐다!!》

김 순경은 속으로 환성을 올렸다. 그는 다우쳐 판자집으로 갔다. 그리고는 마당에서 쌀'겨를 손질하는 아주머니에게 눈알을 부라리며

《누구 허가루 여기다 이따위 변소'간 같은 걸 지었어 응?》

《나릿님,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집을 팔구서 있을 데가 없어 겨우 이렇게 하나 무어 놨는데 좀 사정을 봐주시우》

《사정? 당장 헐어》

아주머니는 사정만 해서 안되는 줄 알면서도 행여나 하여 다시 사정을 해 보았다.

《나릿님, 여기는 잘 보이지 않는 뒤'골목인데 좀 어떻게…》

《잔말 말구 헐라 말이야!》

김 순경은 버럭 달려 들어 판자집의 기둥을 잡아 흔들었다. 아주머니는 바삐 집으로 들어 가서 꽁꽁 싸두었던 돈을 가지고 나와 김 순경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주며

《좀 사정을 봐 주시우》

눈 짐작으로 돈이 도무지 얼마 되지 않음을 느낀 김 순경은 불만스레 돈을 땅바닥에 박 내던지며

《오늘 저녁까지 안 허물면 벌금을 물줄 알아》하고 돌아섰다.

(또 술값을 벌었네)

김 순경은 흐뭇한 마음으로 경찰서로 돌아 왔다.

《빠이 할 것 벌었어?》

먼저 돌아 온 박 순경의 묻는 말이다.

《벌지 않구, 임잔?》

《나두 하나 붙들어 왔네》하고 턱으로 구석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붙들어 온 젊은 사내에게로 다가갔다.

《그래 이 자식아, 벅주에 강도질을 해?》

《나릿님, 일자리 없구, 굶어 죽긴 하겠구 정 할 수 없어 그랬는데 제발… 이번에 뺏은 시계를 다 드리지요》

《네놈은 아직 법을 무서워 하지 않아, 몽둥이 맛을 좀 봐야겠어. 이놈, 남의 재물을 강제로 그래 빼앗아? 너 같은 놈은 때려서 죽이겠어》그리고는 채찍을 들었다.

《나 나릿님 제게 있는 재물까지 몽땅 다… 한 십만 환 됩니다.》

박 순경은 채찍을 놓았다. 그 때 최 순경이 들어 오면서 김 순경을 보고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찾아 왔네》했다. 김 순경은 박 순경에게 나가 보라고 턱짓을 했다.

《김 순경은 지금 없소. 왜 찾소?》

최 순경이 나가 물었다.

《그 나릿님이 와서 판자집을 당장 헐라고 해서…》

《그래 어떻게 했소?》

《그래서 사정을 했는데도…》

《사정만? 흥》박 순경은 어림도 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했다.

《좀 드렸지요. 그런데도 안받고…》

《허물어. 오늘 중으로 안 허물면 에누리 없어, 혈구 벌금…》

최 순경이 나오자 박 순경은 슬그머니 들어가 버렸다. 곁에서 듣고 있던 최 순경은 아주머니에게 마치 동정이나 하듯 인정 있게 물었다.

《듣지 않소?》

《……》

《얼마나 줬소?》

《3천환이요》

《그러니까…한 2천환 더 찔러 주시우》

2천환을 더 주고 나면 당장 굶어야 한다. 그래서 망서리고 있는데 최 순경이 타이르듯

《꿰니 닭 잡아 겪을 나그네 소 잡아 겪지 말구 내 말을 들으시우》

《3천 5백환만 받으시라고 나릿님이 좀 말씀해 주시우》

《글쎄 얘기나 해 봅시다》하고 최 순경은 들어 갔다. 그리고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 김 순경에게

《안되겠어, 가서 좀 울러메!》

《얼마를 주겠대?》

《3천 5백환을 내겠다지 않아》

《3천 5백환?!》

김 순경이 성이 나서 나갔다.

《아니 이 아주머니가?! 그래 허물지 않을 작정이야? 정 안 허물겠다면 내가 가서 허물어 놓겠어》

그리고는 활개를 내저으며 헐려 가는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김 순경을 붙어 잡으며 돈을 꺼내여

《이거 4천환인데…》하며 주머니에 넣어 주려 했다. (그래 기껏 천환을 더 줬는가) 김 순경은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을 뿌리 치며

《너 같이 경관의 말을 듣지 않는 년한테 집 헐구두 벌금을 5천환을 틀리울테다!》

그리고는 도도하여 다시 허물러 가기 시작하였다. 하는 수 없이 아주머니는 김 순경을 붙어 잡고 남은 돈을 마저 털어서는 주머니를 뒤집어 보이며

《나릿님 있는게 요거 단데 제발 좀 사정을…》

김 순경은 마치 사정에 못이기는 것처럼 돈을 넣어 주는 것을 가만이 있었다.

《판자집을 허물리우지 않으려면 좀 깨끗이 해 놔!》그리고 돌아섰다.

경찰서에 돌아 온 김 순경은 자랑이나 하듯 빼앗은 돈을 높이 쳐들어 보였다.

《하하하》

세 순경은 웃어대며 노나 먹자고 모여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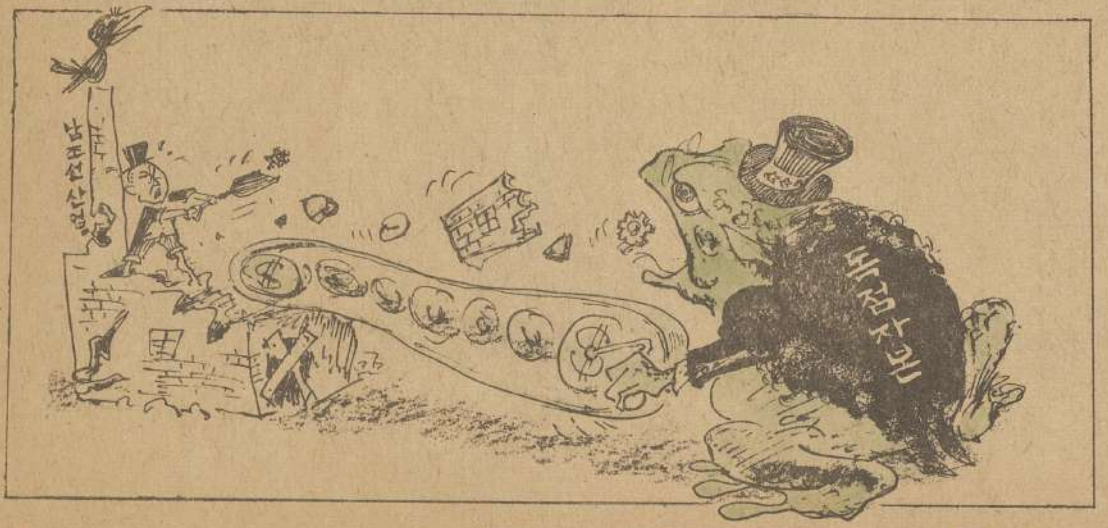
그 때 곁에 있던 림 순경이 호기심이 나 김 순경에게 다가왔다.

《어이 그 판자집이 어데 있어? 나두 좀 땅해 오게》

사흘 후엔 림 순경이 또 돈을 뺏으려 그 판자집으로 찾아 갔다.

리 운봉

##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백 인균 그림



## 없으나 마나

군비 증강과 전쟁 준비에 골몰해야 할 이 때에 《어느 겨를에 위생 시설을 하고 문화 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인가》고 리 승만의 《충실》한 졸개들이 공공연히 뇌까린 바도 있지만 발광적인 전쟁 도발에만 눈이 뒤집힌 리 승만 괴뢰 《국회》가 방대한 군사비 충당을 위하여 예당초 몇 푼 안되게 세워진 《보건비》마저 요렇게 조렇게 잘라 먹는 판이니 남조선 위생 문화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 같기도 하다.

최근 남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까지도 《무서운 병마의 소굴》 《기아와 질병의 도가니》라고 눈살을 찌프리며 말할 정도로 오늘 남조선은 총인구의 4분지 1 이상이 병고로 신음하는 질병의 소굴로 전락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악취 나는 오물에 묻혀 가고 있다.

남조선 전 지역에 일반 의사는 도무지 2,100명 밖에 안되는데 그나마도 그 반수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여 개업하고 있고 그 외의 대부분도 지방 도시들에서 개업하고 있다. 그러한즉 공공 위생 시설이라고는 전혀 없는 형편이며 지방에 있는 의사는 단 100명도 되지 않으니 면이나 읍에서 의료 기관을 리용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보다도 어려운 일로 되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락동강, 한강, 림진강 류역의 광범한 지역에 수십만의 디스트마 환자가 발생되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 밖에 150만의 폐결핵 환자, 20만의 문둥병 환자, 26만의 성병 환자, 20만의 정신병 환자, 4만 여 명의 마약 중독자들이 아무러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다만 죽음만 기다리는 참혹한 형편에 놓여 있다.

경상남도 량산군 량산면에 사는 김 덕수 농민은 다섯 식구가 초근 목피로 겨우 연명이나 해 나가던 살림살이에 그의 처가 봄내 부종병으로 앓다가 밥 한그릇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초여름에 죽은 뒤로는 열 세 살 나는 큰 딸 순옥이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칡뿌리며 풀이며를 뜯어다 대더니 하루는 먹지 못할 풀을 먹었든지 갑자기 열살짜리 큰놈이 배를 쥐고 깡충깡충 뛰기 시작했다.

김 덕수는 어찌할 방도가 없어 쓴 입만 다시더니 무슨 결심이나 한듯이 큰놈을 들쳐 업고 집을 나섰다.

《제길할, 제어미도 약 한방울 못써 보구 죽어 갔는데——》번개처럼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김 덕수는 무슨 결심이나 한듯이 큰놈을 들쳐 업고 나섰건만, 그러나 막상 어데로 갈 것인가?

군에 있는 박 의사네 병원으로? 맨손으로 가서야 별 도리가 없는 것은 빤한 일이건만—— 그러나 한발 한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은 박 의사를 찾아가고 있었다.

박 의사는 찾아 온 환자의 차림 차림을 훑어 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이였으나 금시 숨이 지는듯한 신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듯이 진찰을 시작했다.

《급성 맹장염이요. 수술을 해야겠소. 그도 시간 문제요》

《선생님 어떻게 좀 살려주시오. 네…》

김 덕수는 애원하듯 부탁했다.

《입원 수속을 해야만 입원할 수 있게 되여 있소.》

몇 달을 두고 초근 목피로 연명이나 해가는 김 덕수에게 입원 수수료가 있을 리가 없었다. 더군다나 김 덕수로서는 자기 일생을 더듬어 보아야 그러한 거액의 금액을 손에 쥐여 본 일이 생각나지 않았다.

김 덕수는 묵묵히 앉아 있다가 다시 한번 박 선생에게 애원을 해보았지만

《치료비를 다 내지 못했다고 입원을 했다가 죽은 사람의 시체를 저당 잡아 시체도 못 찾아 갔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소?》

김 덕수는 그만 맥없이 그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러한 오늘의 남조선이니 《의사 있으나 마나》 《병원 있으나 마나》라는 말이 돌고 있는 것도 짐작할만한 일이다.

김 상애

인민 정권 밑에서 | 미제 강점 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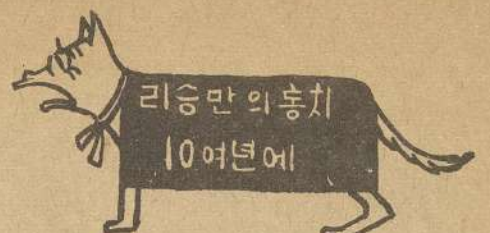
리 영춘 그림

## 동양에서 첫 종은 울렸다

최 영근 그림

## 졸업식에 오신 래빈들

허 능택 그림




## 동생들을 살리려

경기도 파주군에 사는 최 용삼 농민은 얼마 되지 않는 매마른 땅이라 작년에도 곡식을 얼마 거두지 못했는데 〈농지 상환곡〉 〈토지 수득세〉로 7할이나 빼앗아 가고 무슨 세요 무슨 세요 하고 이름도 모를 수십종의 조세를 뜯어 가고 고리로 꾸어 먹었던 량식과 빚을 받아간 데다 경찰지서 유지비라고 하면서까지 마지막 몇 되빡 되는 낟알을 긁어 가고 나니 탈곡 마당에서 겨우 벼 쭉정이 몇 가마니가 남았다. 그래서 가을부터 쭉정이와 쌀'겨 도토리로 때를 이어가며 금년 농사를 지었다. 그러다 어머니는 사망하고 열 아홉 살 난 용삼에게 두 동생이 달리웠다. 풀뿌리를 캐 먹다 그것도 캐 먹을 것이 없이 된 세 식구는 굶다 못해 벼이삭이 패이는 논을 헐값으로 신흥 지주에게 팔고 서울로 올라 갔다.

그러나 서울에서 일'자리를 얻기는 힘들었다. 한 두 명의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면 수백명이 몰려 가는 판이였다. 그는 구두 닦기도 해 보았으나 구두 닦기 소년들이 하두 많아 그 일'감도 미처 얻어 걸리지 않았다. 일'자리를 구하려 돌아다니는 동안에 청도 매매한 돈은 다 써 버리고 세 식구는 굶기 시작하였다. 거지들이 련거퍼 뒤지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뒤져도 빵부스러기 하나 얻을 수 없다. 동생들도 부황증에 걸려 얼굴이 퉁퉁 붓더니 앉아 있을 맥조차 없어 길'가에 누워 있다.

지금 열 아홉인 용삼은 아직 사랑도 해 보지 못했다. 그리고 꿈도 있었다. 그러나 동생들이 굶어 죽어 가는 것은 참아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이틀날 안'과 병원 앞에는 최 용삼의 두 눈알을 판다는 광고가 나 붙었다.

## 살'길이 없다

부산 제3부두에서 일하다 실직한 김 영필은 무너져 가는 초막 앞에 쪼구리고 앉아 있었다. 이젠 산에 칡뿌리도 없다. 그래서 다섯 식구가 벌써 이틀째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채 누워 있다.

그 때 의복을 매끈히 입은 한 사내가 오더니 돈을 줄테니 대리 징역을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값은 적었다. 기간은 6개월.

가족들을 두고 죄 안진 징역살이를 떠난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가족들을 지금 당장 살려야 하니 어이 하랴. 영필은 응락했다.

그는 눈물이 글썽하여 받은 몸값을 처에게 주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돌아 올 때까지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형무소로 떠나갔다.

그런데 추운 겨울 영필이가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 왔을 때 어떤 광경이 벌어졌던가! 한지와 같은 초막 안에서 처가 세 아이를 글어 안고 죽었다!

남편이 떠난 후 안해는 세무 관리들의 성화에 못이겨 체납된 세금을 물고 조금 남은 돈으로 콩나물 장사를 시작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장사라고 한 푼 벌면 두 푼이나 세금으로 뜯아가 체납 세금을 산처럼 걸머지게 되였다.

그러던 중 상반년이 지나니 《상반기 국세 미납 정리 기간》이라고 벅쩍 떠들며 세무 관리에다 경찰까지 동원되여서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고 해서 《인양 차압》으로 가마까지 뽑아 갔다. 네 식구는 겨'죽으로 끼니를 이어 오다가 그것마저 떨어지자 드디여 굶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네 식구는 추워 떠는 아이들을 어머니가 글어 안은채 나흘째 되는 날 이렇게 굶어 죽은 것이다.

## 유아 유기죄

인천에서 어업 로동자로 일하다 해고를 당하게 되자 굶주리던 끝에 남편이 자살한 후 김 영숙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 왔다.

서울에 온 그는 삯빨래와 고포를 수집해 팔아서 겨우 쌀'겨로 끼니를 이어 오다가 요즘은 그 일'거리마저 없어서 겨'죽도 먹지 못한다. 그래서 길'가에 느른해 앉아 있는데 아이들은

〈엄마 배 고파, 응 엄마〉 하고 련성 어깨에 매달리며 조른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팠다.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원수 같다. 그는 드디여 죽어버리려고 결심했다. 처음에 그는 아이들은 남겨 두고 자기만 죽으려 하였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 아이들을 남겨 둔다해도 거리를 방황하다가 전에도 있은 것처럼 보기 흉하다고 괴뢰 당국의 트럭에 실리워 깊은 산'속에 버리우거나 굶어 죽고 말 것이다. 그럴라니 굶어 죽기까지 고통이 오죽하랴. 아무래도 죽을바엔 함께…

그는 조용한 새벽 한강 다리로 가 젖먹이는 업고 네 살잡이는 안고 강에 몸을 던지려는 순간 순경에게 발각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유아 유기죄〉라는 죄명을 쓰고 경찰서로 끌려 갔다.

## 학교

영등포 태창 방직 공장에서 로동자로 일하고 있는 김 선숙은 나이는 마흔 다섯이지만 슬하엔 아들 하나뿐이다. 남편이 인천 부두에서 일하다 사망한 후 그는 유복자 종수를 데리고 지금까지 살아 온다.

(제 아버지는 공부도 못하고 락도 못 봤지만 종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공부를 시켜서 락을 보게 해야지) 때문에 그는 늙은 몸에 굶주림을 참아 가며 종수를 금이야 은이야 키워 온다. 그래서 종수가 이젠 금년에 학교에 들어 갈 나이가 되였다.

벌써 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꼭 아들을 학교에 넣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입학금을 구하려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를 동정해 줄 로동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임금을 받지 못해서 다 같은 형편이였다.

종수와 같이 놀던 옆집 아이가 학교 붙으려 가자고 어머니와 함께 왔다. 그 집에서는 아들이 교원으로 있는 덕에 겨우 자기 아들 입학금은 마련했는데 여분은 없어 도와 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옆집 어머니는 자기 아들만 데리고 학교로 갔다.

사장의 아들, 면장의 아들, 경찰서장의 아들, 직공장의 아들은 모두 학교에 간다. 허지만 입학금이 없는 로동자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한다.

리 운 봉

## △ 교장의 《묘 안》

한 창 수

어느 날 아침, 충청남도 모 고등 학교 교장인 장 인선에게 어떤 낯모를 《손님》이 찾아 왔다. 이마에 엄지 손가락만한 흠집이 있는 데다 어텐가 우악스럽게 생긴 그 《손님》은 교장을 만나자 《이것을 국장님이 전하라고 해서…》 하면서 한 장의 편지를 내놓았다.

편지는 도 《경찰 국장》이 보낸 것인데 사연인즉 이런 것이였다.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내 사촌 동생이네, 크게 다닌데는 없지만 국어만은 똑똑히 가르칠걸세, 힘'끝이 세고 모 단체에서 《우두머리》로 일한 경력도 있으니 학생들의 《불온 행위》를 단속하는 데는 퍽 유익할걸세. 자네를 믿고 보내는 것이니 꼭 부탁하네》

장 인선이와 도 《경찰국장》은 왜정 때 중학 동창생으로 야 쟈 하는 처지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높은 벼슬자리를 하면서부터 장 인선이와는 퍽 거리가 벌어졌다. 더우기 도 《경찰 국장》이 되면서부터는 몇 번 편지를 보내도 회답 조차 없는 사이다.

《자식, 무슨 럼치로 이런 편지를…》 장 인선이는 몹씨 불쾌해졌다. 뱉이 치미는대로 할려면 담방에 편지를 찢어 버리고 눈 앞에 선 놈을 쫓아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심중성》을 생활의 신조로 삼고 있는 장 인선이는 매사에 《용의 주도》하였다.

《그렇지! 그 자리가 어데라고 《학무과》를 거쳐서도 넉근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아직도 나를 잊지 않고 있거든》

자기 딴으로 이렇게 생각한 장 인선이는 그래도 옛날의 우정을 잊지 않고 자기에게 《대사》를 부탁하는 《국장》의 소행이 매우 고마웠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럼 래일부터 학교에 나오시지요》

《손님》을 보내고 제자리에 돌아 온 장 인선이는 그제야 현 국어 교원인 박 필훈의 처치 문제가 떠올랐다.

이리 저리 생각하던 끝에 장 인선의 머리에는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그는 다급히 펜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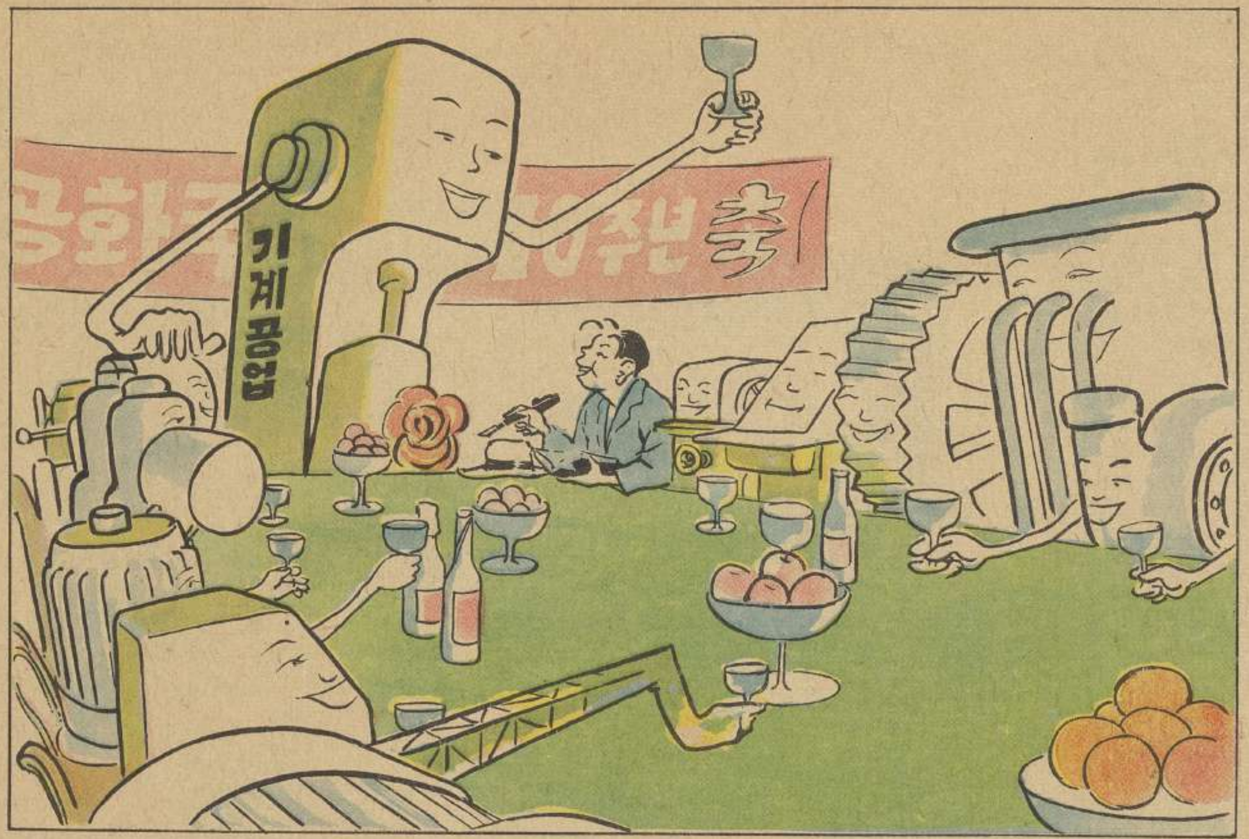
'《자네 부탁은, 아니 국장님의 청원은 그대로 시행하였소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박 군을 어떻게 치울 데가 없어서… 국장님을 믿고 보내는 것이니 꼭 부탁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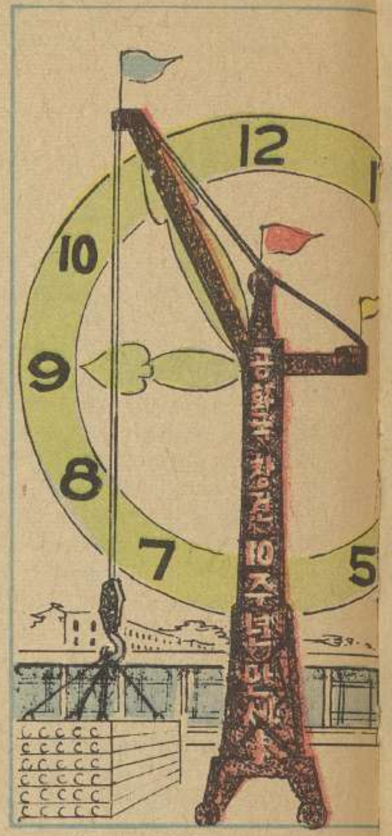
며칠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장의 《심부름》으로 도 《경찰 국장》에게 간 국어 교원 박 필훈이가 그 길로 《론산 훈련소》에 끌려 갔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교장의 《묘안》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

## 남조선의 교육

홍 종호 그림




—나이는 젊었는데 자손이 참 많구만요.

—우리 애들은 각 부문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답니다.

홍 종호 그림

## 인구 일인당 어획고가 세계 제일인 나라에서

원 광수 그림

1. 바다에 와서 산들을 보았고

2. 염천에도 얼어서 달리누나

3. 각색 고기들이 근로자들을 따라 다니니

4. 식탁우의 고기가 뛰여 오를듯 싶고나

## 미국놈의 강점하에서는

리 영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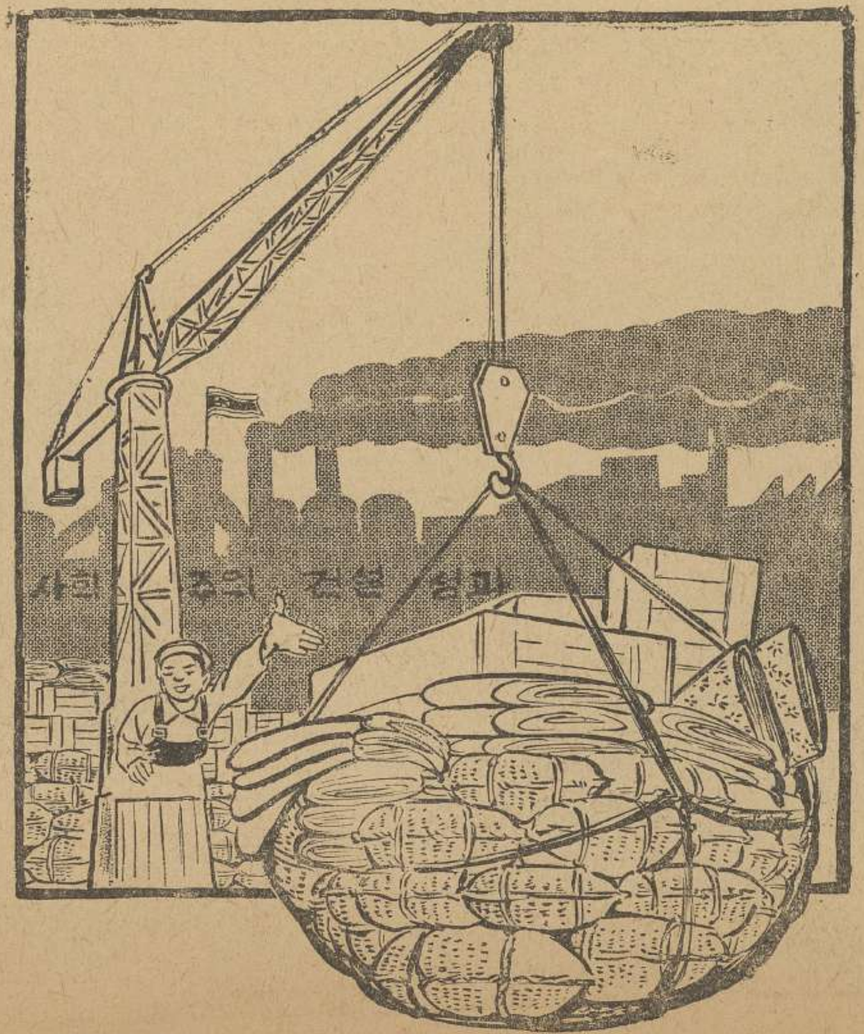
—얘, 거긴 길이 되여서 못가겠구나, 산으로 해서 가자

—이 만큼 위장을 했

—얘, 외출복을 입고 나가거라



## 동포애의 손'길




# 활살 9월호 부록

## 15만 석의 백미를 한 가마니씩 쌓는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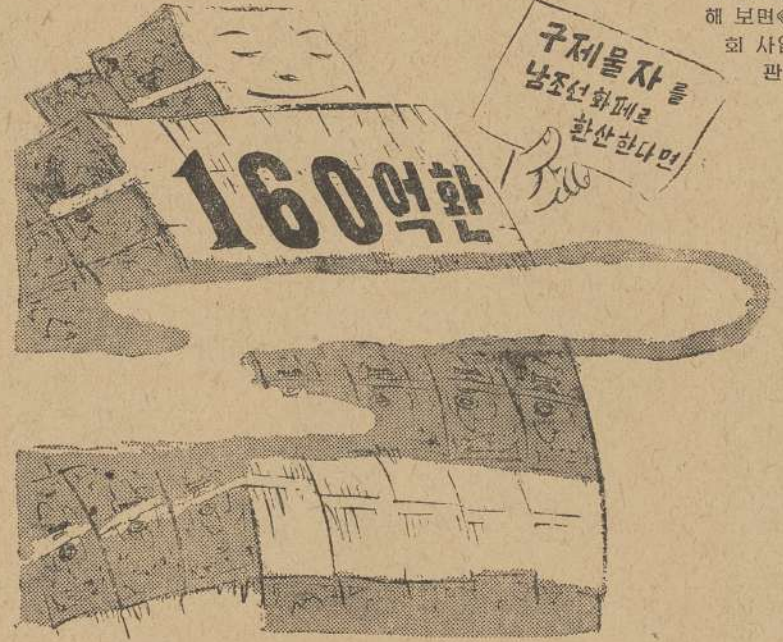
조 명식 그림

## 남반부 인민

홍 종호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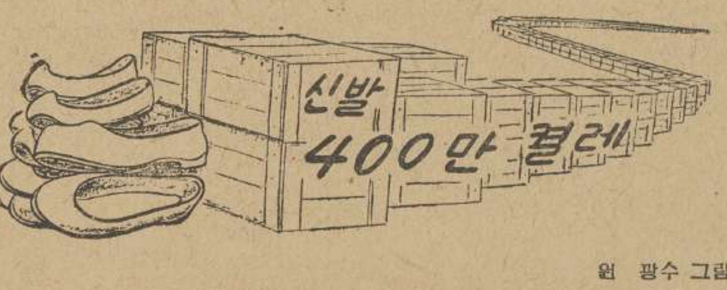
송 용남 그림

160억 환을 리 승만 괴뢰 정부의 금년도 예산 지출 항목들과 대비해 보면《보건 의료비》의 5배,《사회 사업비》의 3.6배, 총《민생 관계비》의 2배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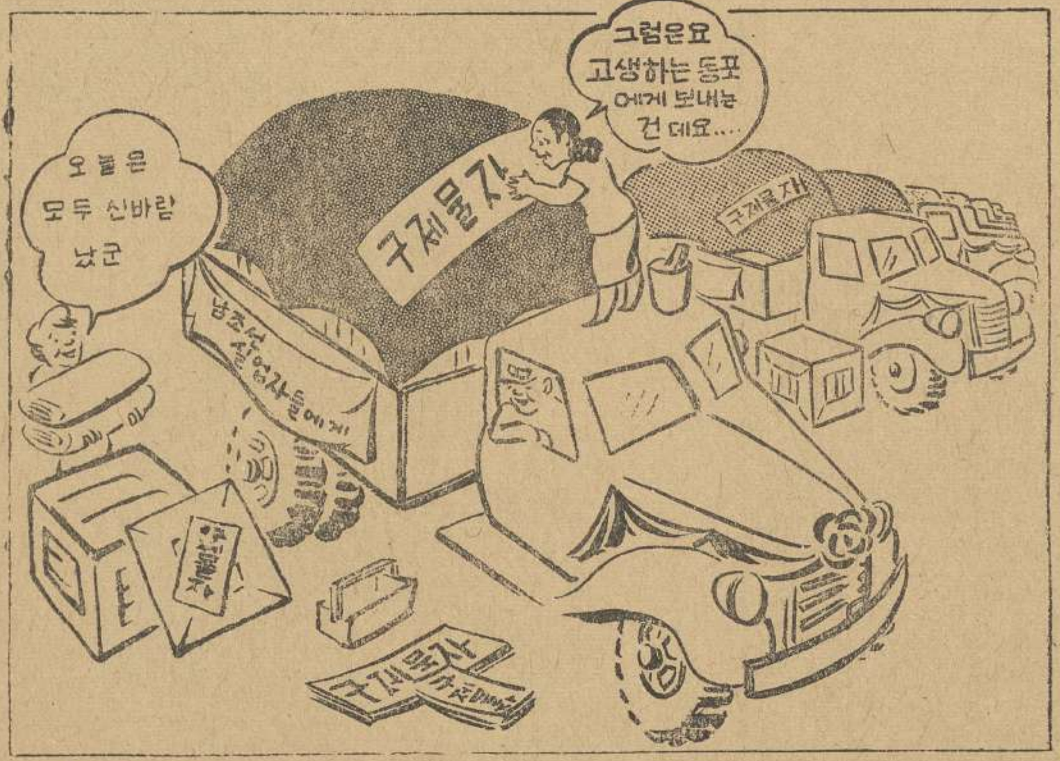

박 인균 그림

리 영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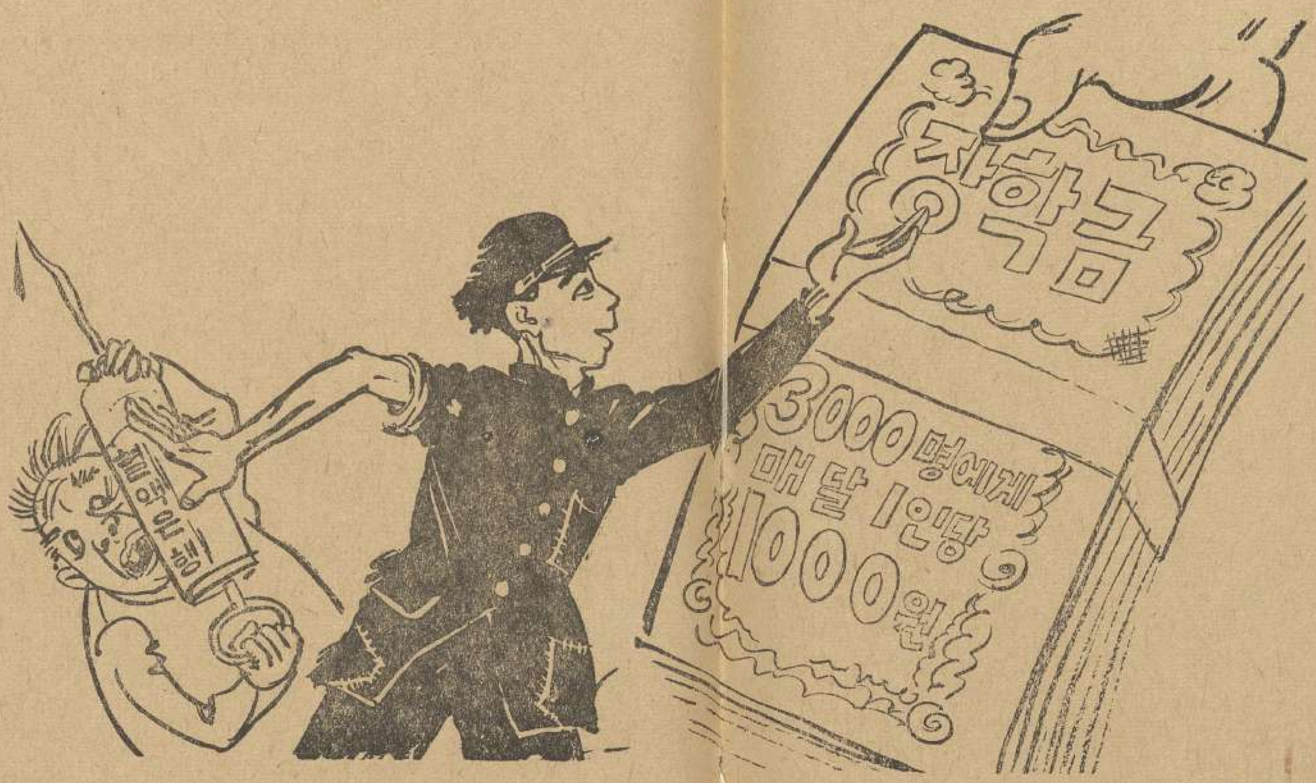



원 광수 그림

## 출발 준비는 돼 있다




최 영근 그림




박 승히 그림

## 더는 참을 수 없다

백 인균 그림

## 구원의 손'길

조 명식 그림

## 남반부 학생들의 처지

허 능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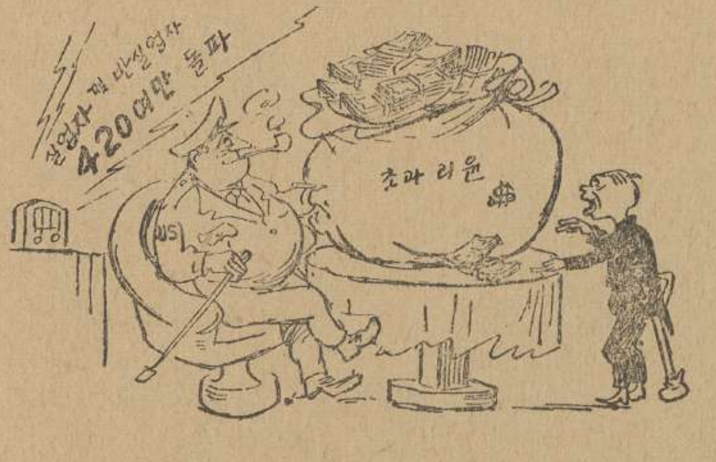
리 영춘 그림

**실업자 홍수의 장본인 들은**

로동 시간을 연장하고

로임 지불은 대량 삭감하고

해고를 해 놓고




실업자가 증대될수록 초과 리윤을
탈취하고 있다

## 남반부 동포들에게 구제 물자가 전달된다면……

원 광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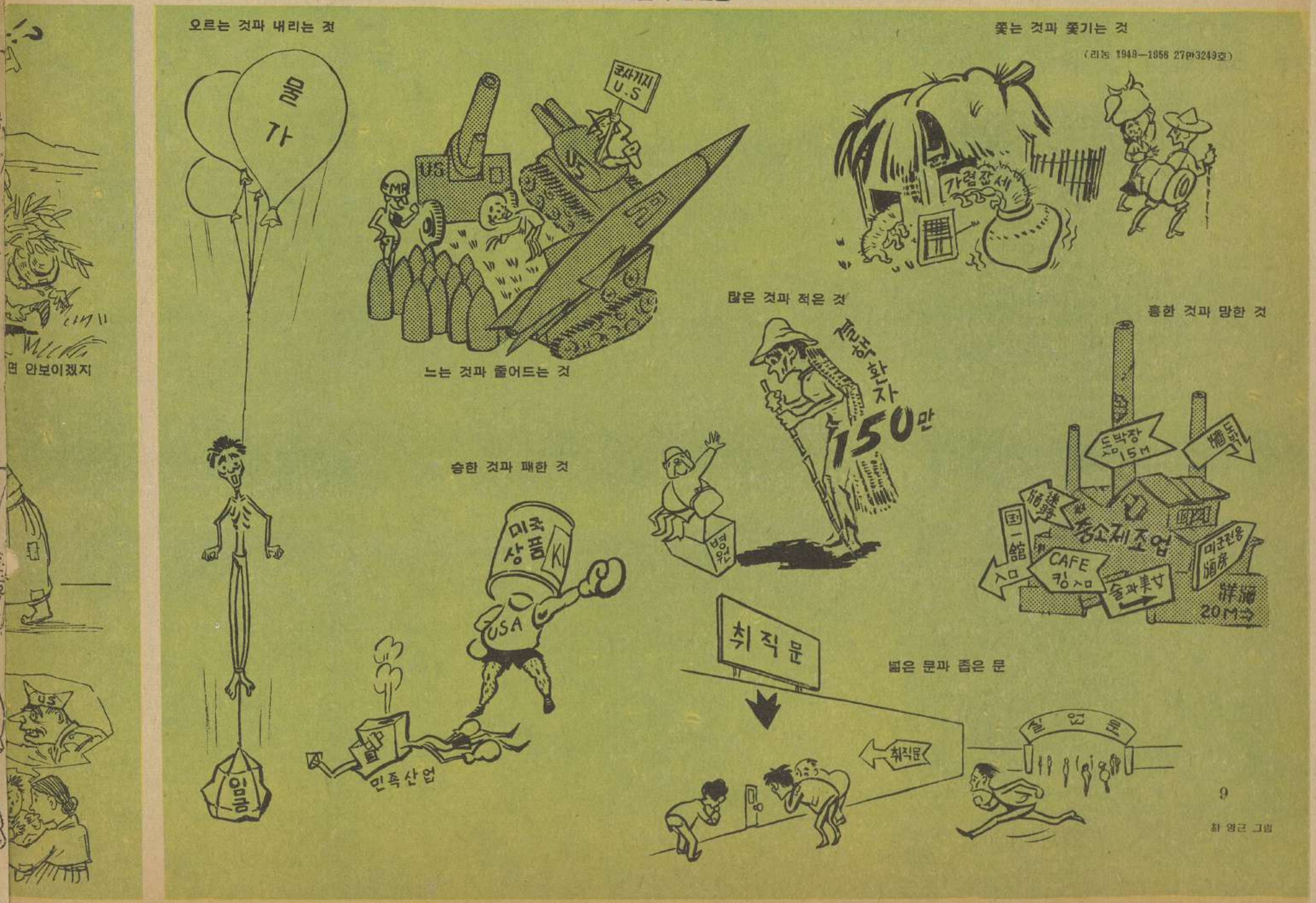
### 평양에서

조 명식 그림

### 풍작을 보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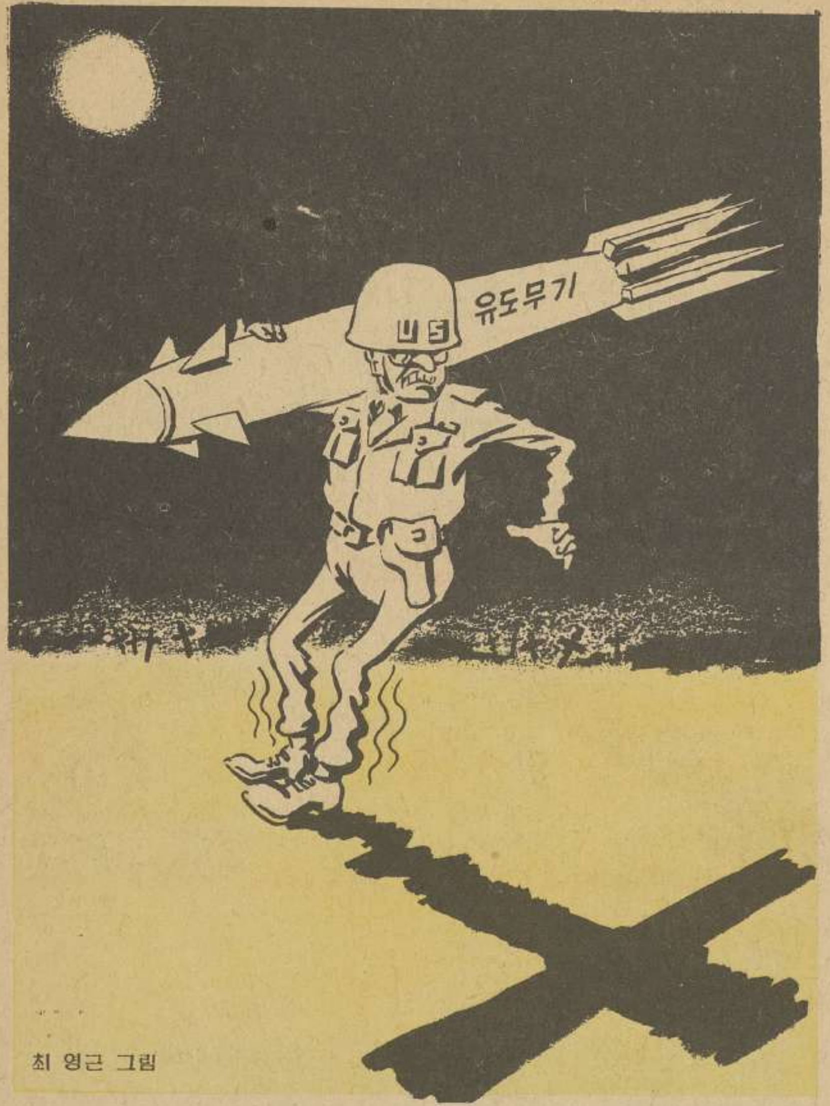
원 광수 그림

### 남조선의 량면상




최 영근 그림

## 운명을 알리는 그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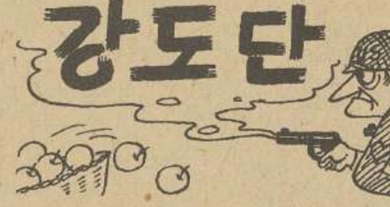



최 영근 그림

타기는 《북진가》를 타는데

소리는 죽어가는 소리!

조 명식 그림




# 강도단

유 항림

광주리에 사과와 닭알을 담아 이고 지나가는 조선 녀인을 보자 브라이언 대위는 사과를 사겠노라고 현관 앞에 사과 광주리를 내려 놓으라고 했다. 흥정을 하는 사이에 그는 녀인을 곁눈질로 몇번이고 보았다. 그 녀인이 비록 옷은 람루하고 화장도 하지 않았고, 또 이미 중년이 지난 나이였지만 밉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렇게 많이는 필요치도 않으면서도 사십 여개의 사과를 골라 놓고 십 여개의 사과를 들고 들어가면서 남어지를 방안까지 좀 들여다 달라고 했다. 사과장수 녀인은 그의 흉계를 모르고 방안으로 들어섰는데 방문이 철컥하고 닫기였다.

녀인은 <으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미국놈들이 어떤 짐승들인지 그 녀인이 아니고라도 모를 사람이 있겠는가?! 브라이언은 처음은 그래도 물욕으로 유인해 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문을 열라고 녀인이 고함을 치기 시작하자 달려 들어서 입을 틀어 막았다.

브라이언의 행동을 말하면서 도덕에 대하여 운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도덕,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렴치도 모르는 자는 사람보다 오히려 개에 더 가깝다. 개에게 도덕에 대해 론한들 무엇하랴!

단지 브라이언이 개와 다른 점은 개와는 달라서 뒤'처리에 대해서 궁리할 수 있는 교활성이 있다는 점이다.

룡산구에 있는 미군 사택 마을은 왜정 때 일본 장교들이 쓰던 집들에 주인들만 바뀐 것으로서 길 좌우 집에는 미군들이 들어 있다. 그런 점에서 브라이언은 안심할 수 있었지만 집 뒤 낭떠러지 아래에는 조선 사람들의 게딱지 같은 판자 집들이 있다. 게다가 대낮이고 사과 장수 녀인은 필사적으로 항거하면서 고함을 질렀으니 낭떠러지 밑에까지 들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가 없었다. 그냥 돌려 보내려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어떻걸까?

그 때 트럭 운전수인 톰프슨' 하사가 문을 두드렸다. 입에 자갈을 물리워 결박된채 아직 쓹어져 있는 녀인을 브라이언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돌아보고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왜 그러나?>

<조선 사람의 반미 감정이 대단한데 대위님 좀 조심하십쇼>

<뭘 말인가?>

톰프슨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현관 앞에 아직도 그냥 놓여 있는 사과 광주리를 들여다 보고 나서 브라이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 보면서 싱글 웃었다.

브라이언도 이제는 시치미를 떼고 체면을 차리려 해도 안될 것을 알았다.

<그래 어떻단 말인가? 임잔 이런 일 한두번두 없었단 말인가?>

<아닙니다. 그저 저기 세집 건너편에 있던 내 차에까지 들렸으니까 조선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을까 해서 그럽니다. 요즘 반미 기세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습니까>

브라이언은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 그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뒤'처리 문제를 의논하는 편이 좋으리라고 생각했다.

톰프슨은 한참 듣고만 서 있었다. 그러면서 보급 창고 창고장인 이 대위의 약점을 쥐고 있는 만큼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리용할 수 없을까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 톰프슨은 입을 열었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녀자를 처리할테니 그 대신 교환 조건으로…>

그 날 저녁.

미군 창고가 있는 곳에서 몇 방의 총소리가 났다.

창고 옆에는 톰프슨의 트럭이 서 있었고 그 옆에 조선 녀인이 총에 맞아 쓰러져 있었다.

이에 대하여 미군 당국은 발표했다.

<밤 9시 5분 경에 미군 보급 창고 앞에 서 있던 톰프슨 운전수의 트럭은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트럭에 만재했던 군수 물자들이 반 남아 강탈 당하였다. 괴한들과 격투하던 끝에 톰프슨은 위혁 사격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강도단 중에서 한명의 조선 녀인이 탄환에 맞아 사망하였다>

뒤이어 괴뢰 경찰에서 발표했다.

<경찰에서는 어제'밤 미군 트럭을 습격한 강도단에 대해서 엄밀히 조사한 결과 유력한 단서를 잡고 지금 전국에 지명 수배 중이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미제 강도배들이 타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인민은 아니다.

분개한 조선 의사들은 피살된 녀인의 시체를 해부하고 강간 당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자 미군과 괴뢰 경찰의 합동 조사 결과라 하면서 그 녀자는 매춘부라고 억울히 죽은 시체까지 모욕해 나섰다. 조선 인민은 더욱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도대체 어디에 그런 누데기 옷을 입은 중년 지난 매춘부가 있는가? 남편이 실업해서 달리는 먹을 길이 없었던 그 녀인은 그 날도 푼돈 벌이라도 해 볼가 하여 사과 광주리를 이고 나갔다는 것을 이웃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 뿐 아니다. 조선인 강도단에게 강탈 당하였다고 하던 그 군수 물자들을 사건 당일 오후 7시 경에 어느 미군 하사가 조선 상인에게 가져다 팔았다는 것도 판명되였다. 이만하면 사건은 명백해 지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미군이나 괴뢰 경찰은 알은체도 않고 그저 <방금 지명수배 중에 있는 강도단이 검거되면 사건의 전모는 명백해질 것이다>라고 되풀이할 뿐이다.

그리하여 놈들은 있지도 않은 강도단은 지명수배해 놓고서 실지의 강도단파는 사건 처리의 대책을 강구하노라고 매일 같이 이마를 맞대고 쑤군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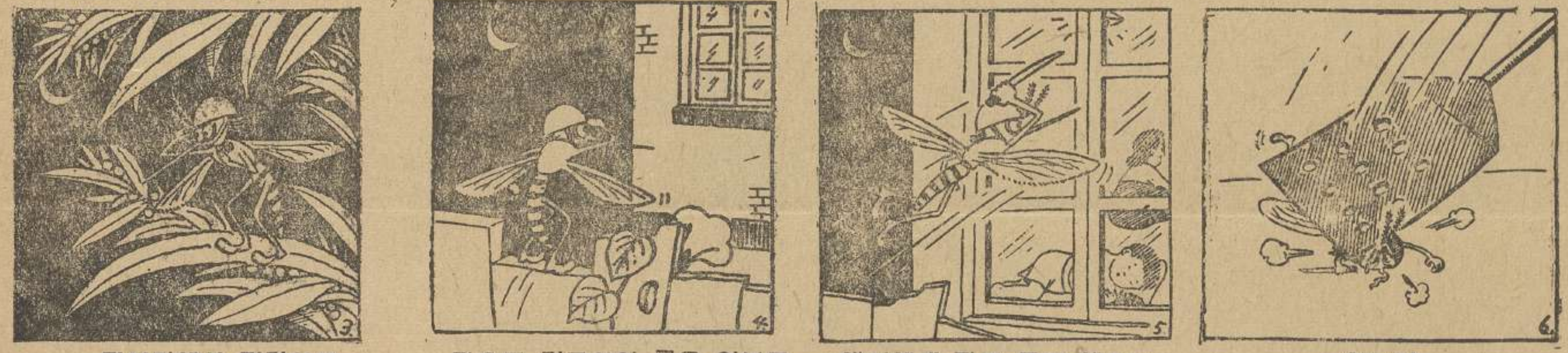
조선 인민이 이런 사실을 오래 참을 수 있겠는가!



## 위험한 암살자

임무를 받고

풀숲에 숨었다가



탑싸리에서 정찰하고

집으로 접근하여 틈을 엿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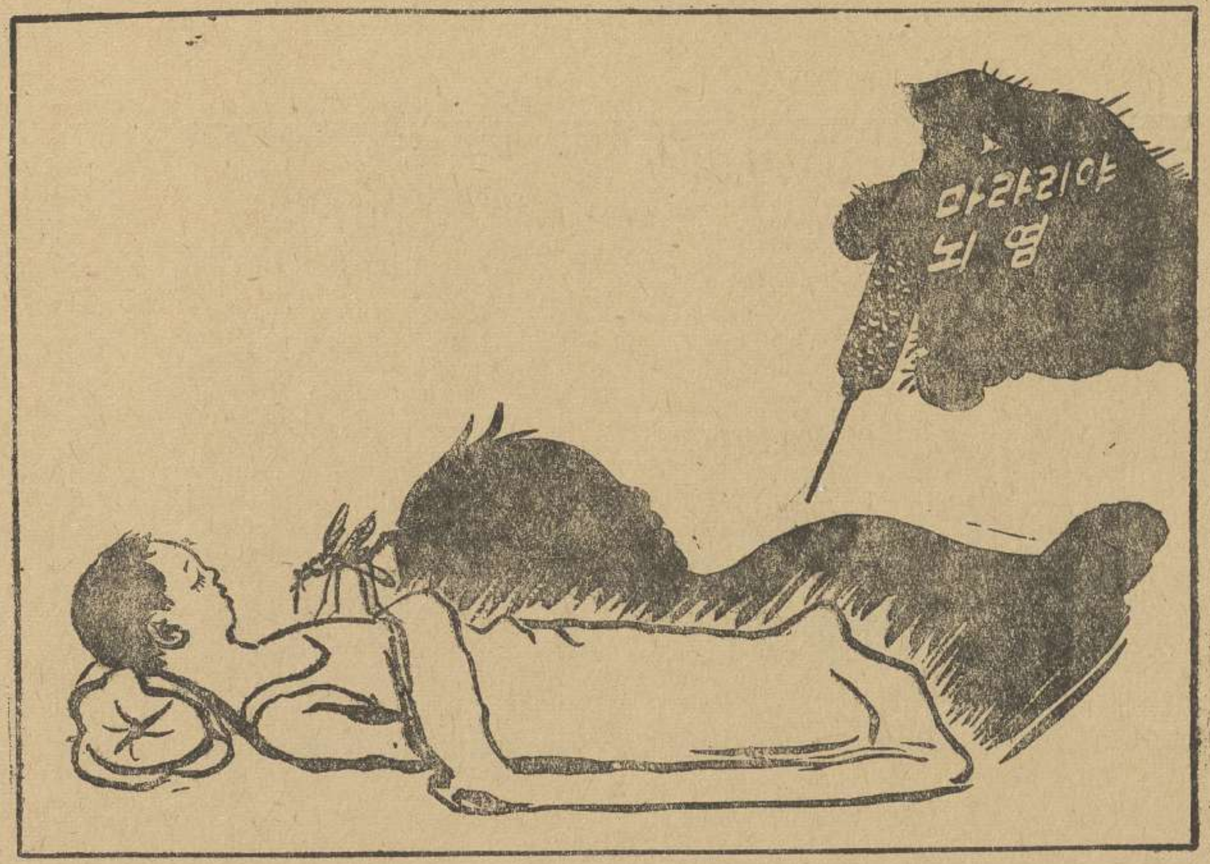
애기에게 달려 들려 했으나

…안된다

원 광수 그림

## 위험 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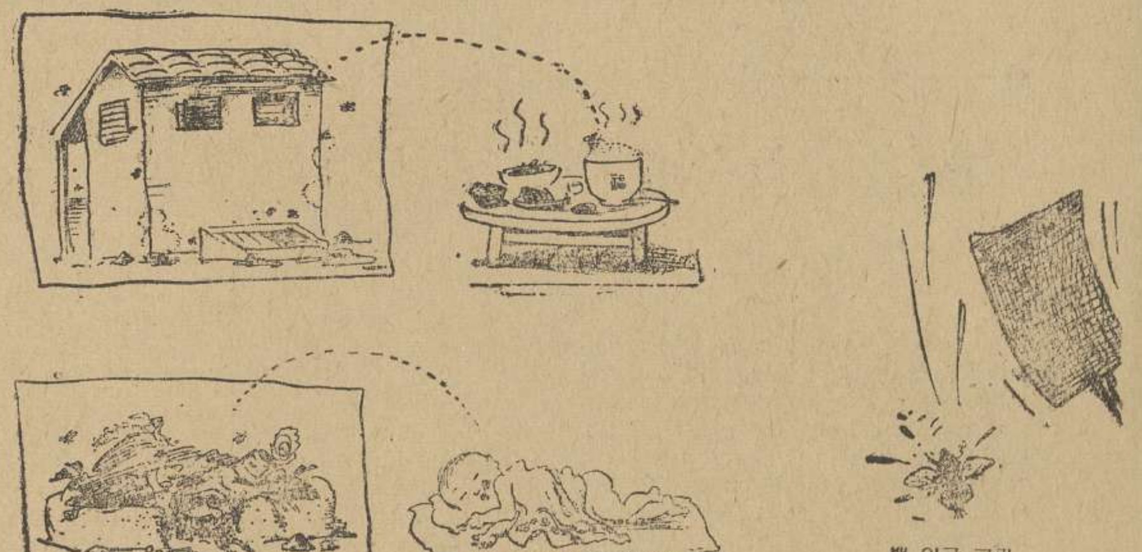
송 용남 그림




## 파리는 병균을 전파한다

조 명식 그림

## 파리는 괘씸한 짓을 하는 놈 한마리도 놓치지 말고 때려잡자



백 인균 그림

병마의 길잡이

리 영춘 그림

모기가 살곳을 없애자!

박 승히 그림

# 간과되기 쉬운 흉악한 원쑤

조국 해방 전쟁 중에 미제 야수들은 우리 후방에 폭탄들과 소이탄들을 퍼붓던 비행기로 파리와 모기와 벼룩까지 떨군 것은 이미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미 침략자들은 공중과 바다로부터의 폭격과 포격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자기들의 침략 야욕을 파리와 모기들의 힘까지 빌려 달성하려고 했던 것도 이미 세상이 다 아는 바다. 모기나 파리가 무서운 살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놈들은 타산했던 것이다.

여름날 파리같이 시끄러운 것은 없다. 여름'밤 모기' 때 같이 귀찮게 구는 것도 드물다. 그러나 모기와 파리의 해는 시끄럽고 귀찮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로 무서운 전염병들을 전염시키는 아주 흉악스러운 병마의 전파자라는 데 있다.

파리는 장 티브스, 적리, 코레라 등의 전염병을 전파시키며 모기는 마라리야, 재귀열, 뇌염 등의 무서운 전염병의 매개자로 되고 있다. 특히 군사 분계선 저쪽 남조선 천지에서는 지금 뇌염이 만연되고 있는 판인만큼, 모기는 지금 특별히 경계해야 할 원쑤로 되고 있다.

그런데 전쟁중 적기가 떨군 불발탄 주위에는 새끼줄을 두르고 벌찍암치로 피해서 다니며 이를 제거하고야 안심하던 사람들이 모기나 파리를 박멸하는 데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들이 없지 않다. 이런 사람 들은 모기의 유충인 곤두벌레가 끄릴 수 있는 물웅뎅이가 집 옆에 있어도 별반 꺼려하는 기색이 없고, 모기가 사람을 습격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기에 편리한 풀숲이 집 주위에 있어도 태연하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들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제 야수들이 자기들의 폭탄 포탄들보다 모기가 우리 조선 인민을 더 죽일 수 있으리라고 타산했으리만큼, 모기와 파리는 그 몸집이 비록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여도 아주 흉악한 적이라는 점을 잊고 있는 것이다.

전쟁 중에 미제 야수들이 각종 전염병에 감염시킨 모기 파리 벼룩 등을 우리 후방에 떨구었을 때 우리 전체 인민이 경각성 높이 이 무서운 병마의 매개자들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박멸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군사 분계선 남쪽에서 지금 한참 만연되고 있는 뇌염의 침입으로부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건강과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모기를 박멸하는 데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동원되여야 할 것이다.

# 갈아질 운명

김 태선

옛날 어느 화창한 날에
온 동네가 한자리에 모였다.
누구나 희색이 만면하여 박장대소했다.
<그 아니 쾌할소냐!>

마침 그 곳을 지나던 사내
게트림하며 수염 내리 쓸며
갈지'자 걸음으로 틀을 차리며,
<그 무슨 경사인고, 왜 이리 기뻐하는고!>

게트림하며 수염 내리 쓸던 사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어깨 넘어로 들여다 보는 데,
늙은이도 젊은이도 하는 말이——

<우리 동네 소두 여러 짝 없어지더니
흉칙스러운 소도적이 잡혔다네.
회실레로 세상을 하직하고
목이 떨어져 땅에 뒹굴었다네!>

사람들 틈에서 빠져 나오며
사내는 자기 목을 쓸어 보았다.
<이크 정신 차려야겠는걸!>
도적놈이 제발이 저려오는 모양.

제발이 저려오는 놈은 오늘에도 있어
바그다드에서 파이살의 목이 떨어지자
서울에선 비상 경계령을 내렸다,
리 승만은 자기 목을 쓸어 보면서.

바그다드는 서울에서 수륙 수만리
같은 처지의 그가 놀란건 갈아질 운명—
미제 강도들에게만 필요한 매국노는
결국은 인민의 처단을 받고야 만다는——

# 《합동 수사》

오 홍택

매일 매시각 닥치는 대로 조선 사람을 살해하는 미제 살인귀들은 자기들의 만행에 대한 죄행을 감추기 위하여 조선 사람에게 <도적>이라는 루명을 들씌우고 있다.

모든 살인 사건은 의례히 <미군 당국>의 간단하고 제한된 발표로 공포된다.

7월 22일 조선 청년을 살해한 미제 7사단 공병 부대 사건도 미 당국에 의하여 발표되고 살해된 조선 청년을 <도적>으로 묘사하였다.

남조선 통신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미군과 괴뢰 경찰이 합동 <수사>를 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 결과>도 다른 모든 살인 사건의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 ×

미 제 7사단 공병 부대장이 사단장을 찾았다.

<사단장 각하! 우리가 조선 청년을 처치한 데 대하여 한국 경찰과 합동 수사를 할 필요가 어데 있습니까?>

<한국측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소?>

<아닙니다. 한국 신문 보도가 그렇게 되여 있습니다>

사단장은 픽 웃고 질문에 흥미가 없다는 듯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사단장 각하, 우리는 한국 야만들과 함께 합동 수사를 하는 것을 모욕으로 생각합니다>

사단장은 또 능글 맞은 웃음을 띄우고 대답도 없이 공병 부대장을 바라만 보았다.

<각하, 우리 미군이 조선 청년 한 사람을 정당 방위로 처치했는 데 한국 경찰의 간섭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 미군의 행동에 간섭하오?>

<한국 경찰이 우리가 만들어낸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그들의 간섭이 아닙니까?>

<누가 그걸 허용했소?>

<한국 신문들이 사단장이 발표한 공식 발표로 그것을 보도했습니다. .>

<그것은 공식 발표일 뿐이요.>

공병 부대장은 그제야 안심이 된다는 듯이 담배 케스를 집어 내였다.

사단장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조선에서 우리 미군이 행동하는 것을 간섭할 권리가 조선 사람에게는 부여되여 있지 않소, 자기의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누구의 간섭도 비난도 허용되지 않소, 그러나 공식 보도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오.>

사단장은 다시 기지게를 펴고 말을 계속했다.

<그래 이번 사건의 진상이나 이야기하오>

<조선 청년이 우리 부대 물품을 흠치기에…>

<노-노-, 그것은 공식 보도요, 진상대로 말하오. 자기 권리를 행사한 우리 미군의 용감성을 그대로 말하오.>

<네 사실은 우리 부대 하사가 조선 청년의 물품을 빼앗았는 데 그 청년이 물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사는 정당 방위로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렇소, 바로 정당 방위 그것이오, 그러나 사건이 너무 평범하오, 우리 미군에게는 더 스릴이 있고, 더 용감한 정당 방위가 얼마든지 허용되오.>

사단장은 이 살인 사건에 대하여 흥미가 없다는 듯이 큰 하품을 하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공병 부대장이 방으로부터 나가려고 할 때 사단장은 발작증을 일으킨 사람처럼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우리 미군은 용감하고 스릴이 있는 행동이 없이는 5천 마일이나 떨어진 조선에서 흥미를 느낄 수 없소, 더 자유롭게 더 대담하게 행동하라>

## 긴급명령 (괴뢰군)

## 북반부의 논 밭은 관개수로 적시건만

허농택 그림

## 남조선의 논 밭은 눈물만이 적시누나

# 몽둥이 국회

신 흥 순

오늘날 남조선 인민들이 소위 《국회 의사당》을 가리켜 《란투 극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리유가 있다.

원래 남조선 《국회》라는 것이 경찰 테로로 되는 《몽둥이 선거》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또한 력대 〈국회〉가 여당 야당간의 세력 다툼으로 란투극을 연출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국회〉 진행 도중에 겁핏하면 명패가 날아 들고 딱하면 의장봉으로 후려 갈기기가 일수요, 이놈 저놈 이자식 저자식 쇠새끼 개새끼 하다가 나종엔 차고 때리고 하는 통에 코가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심지어는 수십여 명의 테로 패거리들이 우— 몰려 와 란장판을 만드는 일이 다반사로 되여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아니고서는 보기 드문 진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우기 로골적인 〈협잡 선거〉와 《몽둥이 선거》로서 당선된 금번 제 4대 《민의원》들이라 이러한 란투극의 전통을 더욱 계승 발전 시키여 《국회》 개회 벽두부터 물고 뜯고 격렬한 개싸움 판이 벌어진 것은 그리 괴이한 일이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금력과 폭압으로서 억지 당선된 부정 《의원》들이 많으니 만치 우선 이 가짜 의원들을 숙청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하는바요!》

《뭣이 가짜? 누가 가짜야? 엉? 아니 누가 협잡을 했어?》

《1천 2십 여 건이나 되는 선거 사범 소송 건수가 여실히 말해 주지 않소? 합천 을구며, 울산 을구, 영주, 담양, 리리, 부산, 영도, 사천, 화순, 김해 지금두 계속 자꾸 자유당의 부정 행위가 들어나고 있지 않은가?》

《음 그거야 인제 조사를 해 봐야 알지, 우리 자유당만 들어 나나? 야당들의 협잡 사건두 꼬리를 물구 들어 나는데 흐 참!》

《자 보란 말야! 저 담양에서는 투표 직전에 3백 여 명의 깡패가 들어 와 야당계 선거 운동원을 구타하고 자유 분위기를 파괴하는 건 뭐냐?》

《거야 자유당 립후보자 최 창섭에 대해서 모략을 하기에 그 모해를 분쇄하기 위해서 파견했던 거다》

《그리구 영주에서는 경찰서장 박 영애가 40 여 명의 경찰을 인솔하고 와서 투표함을 보관해 둔 군청 창고를 습격하여 환표를 감행하구 수십 여 명의 선거 운동원을 구타 랍치하였으니 이건 정말 세계에 류례 없는 망국 행위가 아니고 뭐냐?》

《흐 참! 외국에서는 선거 때 살인까지 하는데 거기에다 대면 우리 나라 선거는 공명한 선거라고 말할 수 있다.》

《허! 공명선거? 이렇게 각지에서 선거 분위기를 파괴하고 협잡 선거를 보장한 내무부 장관을 불러다가 힐책을 해야 되겠다》

《아니 뭐 내무부 장관이 뉘집 강아지루 아나? 불러 오구 말구 하게? 흐 참!》

《그리구 자유당 출신 의원인 김 익로는 협잡 행위가 탄로돼서 이미 대법원에서까지두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렸으니만큼 그간 처리한 일체 안건두 재심의해야 할 것은 물론 우선 의장단 선거두 다시 해야 되겠다》

《당선 무효 판결은 대법원의 오판이다!》

《오판? 이판 삼판은 아니구 오판이야? 그리구 리 기붕이가 의장으루 됐지만 그 사람도 정식 자격 심사부터 다시 해야겠다! 도대체 《무투표 당선》이란게 세상에 어딨느냐? 이것은 강도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뭣이? 강도 국가?》

《그렇다! 이 모든 불법 행위의 모든 사실은 행정의 수반인 리 승만의 정치 책임이니만치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안을 제출하는 바이다!》

《뭐 경고안?》

이렇게 하여 리 승만의 죄행을 밝히는 《대통령 경고안》까지 세상에 발표되였던 것이다.

일이 이쯤되니 여야간의 싸움은 점차 백열전으로 들어 가서 밖에 나와서도 곧 잘 란투극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최근에 일대 희극을 연출한 《만리장 사건》이다.

료리점 《만리장》에서는 자유당 〈국회〉의원 패와 민주당출신 〈국회〉의원 패가 각각 술 좌석을 벌려 놓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대 란투극이 벌어졌다.

《임마! 너희 놈들은 민주주의란 민짜나 알구서 민주당이냐?》

《그럼 너희 놈들은 자유는 내다 버림 무슨 자유를 표방한다구 자유당이냐?》

《임마! 우린 욕하는 것두 자유구 때리는 것두 자유다! 어째?》

《우리두 미국식 민주주의다! 너이 놈들이 미국 식으로 하는데 우린 못할줄 아니?》

《네놈들은 몽둥이루 당선이 됐으니까 몽둥이 의원이다!》

《너이 놈들은 돈으루 매수했으니까 돈뭉치 의원이다!》

《몽둥이 의원!》

《돈뭉치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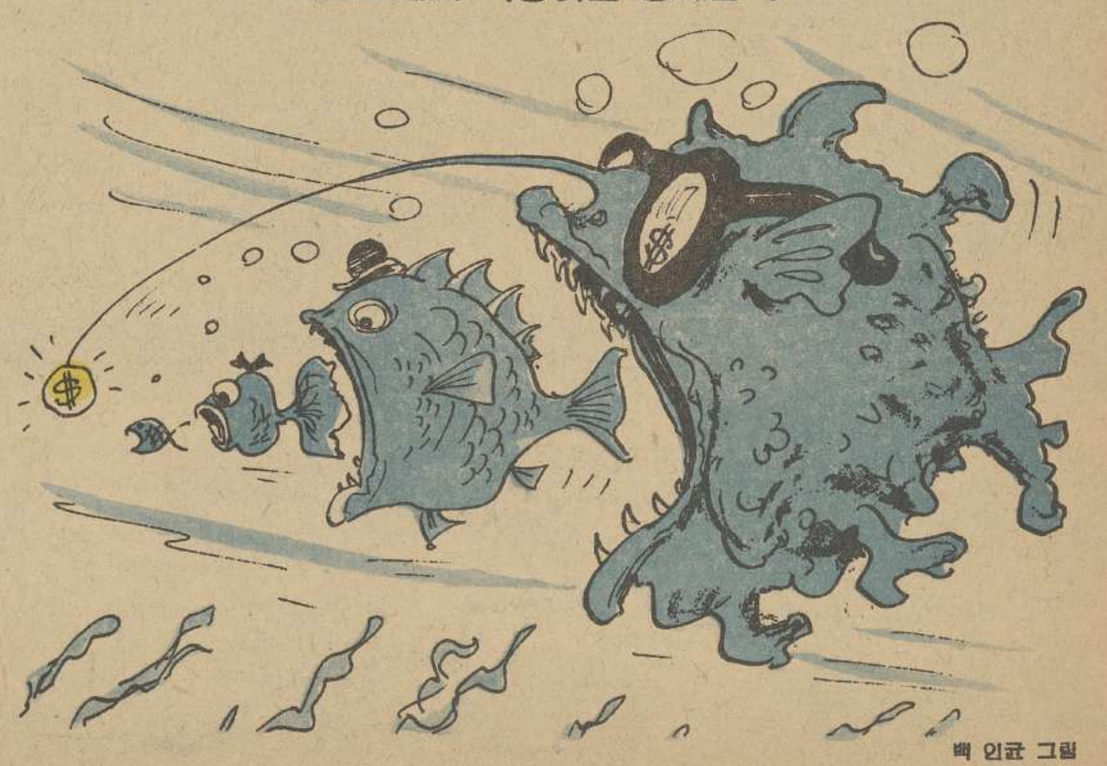
《너는 가짜 의원이다!》

《네가 가짜야!》

이렇게 서로 옥신 각신 하다가 접시가 날아 가고 술병이 날아 가더니 나중엔 멱살을 잡고 치고 때리고 일대 편 싸움이 벌어져서 머리가 깨여지고 정갱이가 부러지고 하는 통에 경찰이 우— 몰려 와 야당패를 몽땅 인치해 갔다.

그래서 인민들은 남조선 국회를 《몽둥이 국회》라고 한다.

## 남조선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



백 인균 그림



# 레바논의 밤은 깊어 가는데…

최 경희

레바논의 밤, 아라비야의 전설 같이 아름다운 밤은 오늘도 깊어만 가는데… 베이루트시 교외의 국제 비행장에 외로히 보초를 선 요한손 미국 전사는 온 몸을 움츠리고 긴 한숨만 쉰다.

—아— 아…! 이게 어데 〃아라비얀나이트〃에 나오는 그 꿈나라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데가 있단 말인가…

저 멀리서 들려 오는 아우성 소리는 황금 기사의 구원을 애원하는 아랍 미녀의 가냘픈 목소리가 아니라 《불청객 양키는 나가라!》하고 레바논의 남녀 인민들이 웨치는 억센 분노의 함성이요, 따꿍따꿍하고 이 밤 하늘의 대기를 째는 총'소리는 구룡 (아홉개의 머리를 가졌다는 아랍 신화의 뱀)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몇 갑절 더 흉악무도한 미 침략군파 《샤문군》의 심장을 겨누고 베이루트 시의 회회교도 주민 지구에 진을 친 인민 항쟁군 전사들이 쏘고 있을 복수의 총탄'소리라, 요한손이 개미 기여가는 바스락 소리에도 깜짝, 제 구두 제 방귀'소리에도 끔쩍, 마치 바늘 방석에 앉은 놈처럼 전전 긍긍하여 긴 한숨만 내쉬고 있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핑—— 이번에는 총알이 그의 귀'전을 스쳐 날아가는 바람에

《으악!》 하고 그만 궁둥이 방아를 찧고 나가자빠지고 말았다. 요한손은 막 울상이 되였다.

——왜 내가 이 온통 붐붐고 있는 땅엘 꼭 와야만 하였는가?

아이크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자유를 위한 레바논 사람들의 투쟁을 도와 주기 위하여서는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저렇게 레바논 사람들은 우리를 달갑지 않게 대하는 건가?

암만해도 모를 일….

자, 어제는 정찰병 잭크가 레바논 소녀이 바쳐 주는 사이다를 이거 좋아라 하고 그것이 화약병인 줄도 모르고 받아 먹다가 찍소리도 지르지 못한채 박살을 당했지, 또 오늘은 륙전대 머큐로이가 아랍 처녀의 포도를 빼앗아 먹고 나서 배 꿰진 미꾸라지 모양으로 돼서 뒤어져 버렸지.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분대 톰손이 갑자기 행방 불명이 됐지…

하고 이쯤만 생각을 더듬어도 벌써 더럭 겁이 나는데 《적》들이 포위망을 조이면서 다가 오는 것만 같아서 그는 후닥닥 뛰여 일어 섰다. 그리고는 부러져라 하고 총을 꽉 다가 쥐고 멍석 구멍으로 쥐새끼 눈 또듯 두리번두리번 살펴 보는데

——아이구 하나님 아버지, 고맙기도 하여라!

요행 사위는 캄캄하고 쥐 죽은 듯 고요한데 아무 이상 없는 것 같다. 《후——.》

하고 이마에 맺힌 진땀을 씻으면서 어깨에 총을 걸친 요한손은 조심조심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이번에는 제 발굽'소리에 놀라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써 가면서… 그러나 납덩어리 같은 무거운 생각이 다시 그의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하였다.

축 내려뜨린 요한손의 머리에는 카르포니야에 있는 자기 고향, 머리가 다 흰 외로운 어머니, 약혼자 돌아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마리야, 그리고 불구자가 된 맏형… 이러한 영상이 번갈아 떠 올랐다.

그 맏형으로 말한다면 금비녀를 꽂고 다닌다는 동방 미녀를 탐내서 몇해 전에 조선 전쟁에 끌려 갔다가 그저 망쪽 생다리만 짤리우고 되돌아 온 위인인데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요한손의 손도 부지 불식간에 제 다리 쪽으로 간다. 그러나 요행, 아직 다리는 몸뚱아리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다.

《제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 다리에 복 많이 주소서…》

하고 입안 목소리로 기도를 올린 그는 낮윽이 한숨을 쉬고 어깨를 움츠렸다.

따꿍——.

별안간 총'소리가 나는데 이번에는 바로 코앞에서 났다. 요한손은 찬 물 벼락을 맞은 것처럼 소스라쳐서 황급히 머리를 쳐 들었다.

—앗, 저게 무얼까? 후슨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다. 섯! 쏜다! 움지기지 말라!

하고 얼른 소리를 질러야겠는데 입안에 자갈을 물었는지 도무지 목구멍에서 바람이 새여 나오지 않는다. 다급하여 진 요한손은 떨리는 손으로 그저 총만 공연히 쳐 들었다 내렸다 한다. 그러다가 이제는 묘준을 하고 총질을 하려 하는데 허 이거 참 어데로 삼아졌는지 목표물이 보이지 않는다.

—아냐, 내 눈이 아마 도깨비 귀신에 호렸나 봐. 바람에 흔들린 나무가지 그림자를 잘 못 본 거겠지. 암 그러면 그렇겠지, 여기를 어텐 줄 알고……——.

요한손은 움푹 패인 두 눈을 마구 부비면서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고 그러나 성화나게 뛰노는 제 심장만은 달랠 수가 없었든지 될수록 그 쪽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고는 슬금슬금 물러 섰다.

—그러나 만약시 저게 정말 사람이라면? 정말 저게 레바논 폭동자라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 모두 매 맞는 똥'개가 몽둥이만 쳐다 보듯 다시 그 쪽을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ㅅ!. 정말 사람이야 사람! 손을 놀리면서 이 쪽으로 걸어 온다! 저 손에 쥔 것은 권총인가? 아니면 비수?

요한손은 눈앞에서 번개가 치고 정신이 아찔하여지는 것을 느꼈다.

《누구야, 섯! 쏜다! 군호!》

그는 깨여진 오지그릇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온 몸을 웅크렸다. 그런데 대답 대신

——핑! 하고 총알이 날아 왔다. 요한손은 총을 쥔채 나가자빠졌다.

《아이구 난 이젠 마지막이야, 오 마리야…》

그러나 총알은 빗 나갔고 그는 다친 데가 없었다.

《수류탄을 던져야겠다! 총을 쏴야겠다!》

요한손은 상반신만 일으킨채 그럴사한 데를 대고 마구 불질을 하였다.

검은 그림자는 끝내 꺼구러졌다.

요한손은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얼굴에 흉악한 웃음을 띄우고 《적》의 시체 쪽으로 다가갔다.

박살난 수박처럼 된 《적》의 얼골을 들여다 보았을 때 그는 자즐러져 놀랬다.

《앗! 이게 톰손이 아닌가?》

술 미치광이 톰손의 쑥떡밭처럼 된 시체에서는 아직도 고약한 술냄새가 풍겼고 그 옆에는 깨여진 미국제 술병이 널려져 있었다.

요한손은 온 몸이 일시에 나른하여져서 풀썩 주저앉고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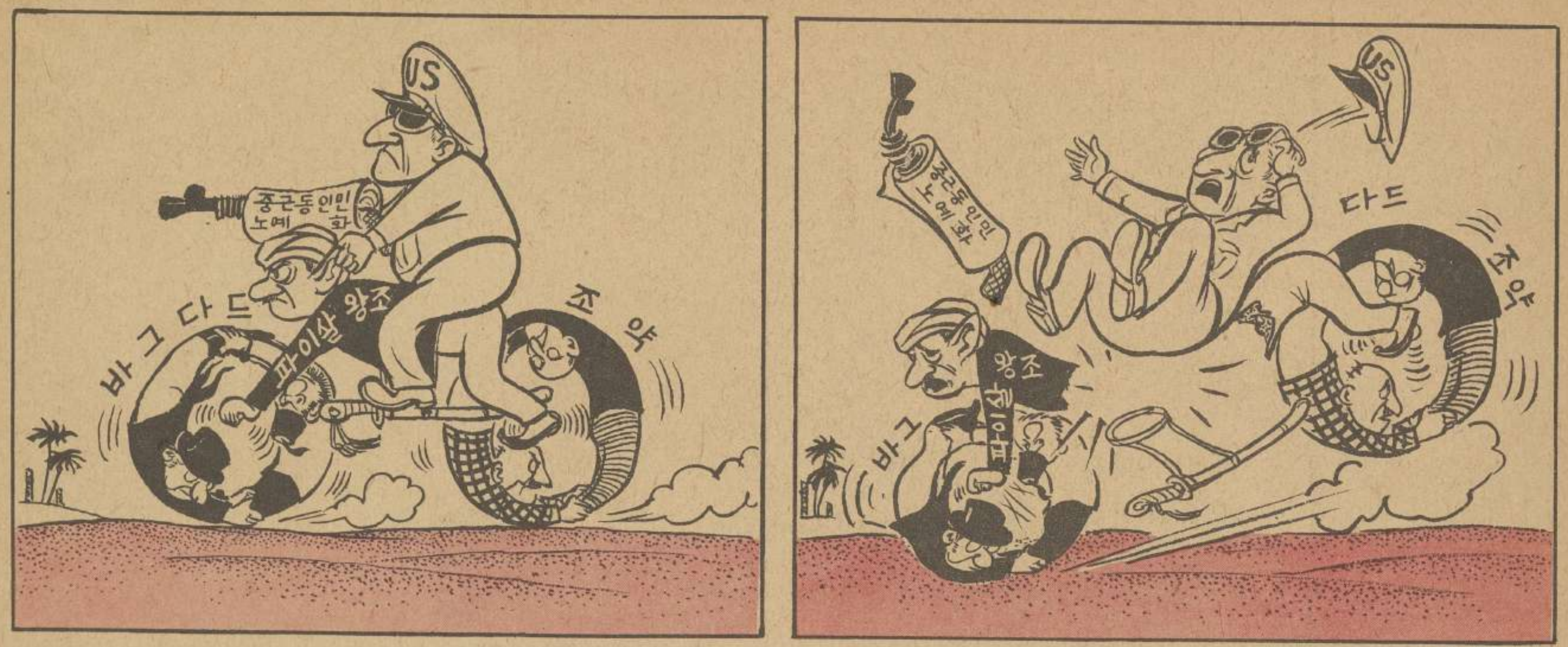
그의 머리 우에서는 레바논의 밤, 전설 같이 아름다운 아라비야의 밤이 깊어만 가고 있다.

## 알맞는 선물

## 간첩 암해 분자들은 틈을 노린다

홍 종호 그림

## 허리가 부러져 나갔다




원 광수 그림

# 괴뢰의 옥좌와 상전의 구두

로 철

《스탠다드 오윌 오프 뉴저시》회사의 바그다드 대리점 지배인이며 《이라크 석유 회사》의 미국측 리사인 허커티는 예전보다 좀 일찌기 잠들기로 하였다. 래일 새벽 4시 비행기를 타고 급히 이스탐불로 떠나야 하는 것이다.

이스탐불에서는 7월 14일부터 바그다드 조약 참가국인 이라크, 이란, 토이기, 파키스탄의 왕들, 수상들이 모여 앉아서 《초긴급 회의》를 가지게 되여 있었다.

허커티는 비록 미국의 장사아치라는 신분을 가졌을망정, 아랍 세계의 무슨 2세이요 어느 3세이요, 어떤 알지 못할 모하메트 피주의 후세 출신이요 하고 요란스러운 패'족을 메고 다니는 이들, 왕들, 친서방 수상들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안면이 두터운 사이였다. 아니 이들이 허커티의 말을 얼마나 고분고분 잘 들어 왔던가! 허커티가 뉴욕 주식 취인소 뒤'골목의 어깨치기 패거리 출신이라는 것을 분명 모르는 배 아니였건만 그의 말이라면 새우 벼락 맞던 이야기까지도 금조옥과로 곧잘 받아 들던 터였다.

그러나 이번만은 사정이 좀 《묘하게》 되였다.

정세가 험하게 된 것이다.

레바논에서 불이 일어 났다.

요르단에서는 후세인 왕이 어찌나 겁에 질렸는지 침대 바로 옆에 중기관총이 《편안히》 도사리고 있는 것을 만져 보고 나서야 잠을 청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해마다 근 5억 딸라씩의 순리익을 미국에 뽑아 주고 있는 키르크쿠―트리폴리 송유관 주위가 온통 불에 쌓여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허커티는 백악관과 로크펠러 2세로부터 최근 십분 황급한 전보 지시를 한두번만 받은 것이 아니였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리익을 사수할 것》

《바그다드 조약을 발동시킬 것》

《파이살의 군대를 레바논 요르단에 파견할 것》

이렇게 성화 같이 독촉하다가

《만일 이라크에서도〃폭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미국 대사와 함께 허커티, 당신이 책임 지는 줄 아오》라는 협박장까지 받은 것이 바로 어제 12일이였다.

허커티가 부랴부랴 파이살 왕, 그의 숙부이며 왕세자인 일라흐, 수상 누리 사이드를 불러다 놓고 다시 한번 《강력한》 지시를 준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그는 이 세명의 《미국 친우들》을 꼬리에 달고 어제와 오늘 현지 시찰로 떠났던 것이다.

에즈 주바이르 하네낀의 유정들과 척척한 두바이싼 분지를 횡단하고 있는 송유관들, 그리고 이 《검정 피》를 첩첩히 둘러 싸고 있는 이라크 왕국 군대들을 돌아보면서 허커티는 뒤따라 오는 파이살에게

《여보 젊은 왕, 이 미국의… 아니〃이라크 석유 회사〃의 송유관이 바로 당신의 옥좌를 지키고 있는 생명선인 줄 아시오》

하고 펨파리 같은 상판대기를 돌렸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 1개 대대, 저기 레바논쪽으로는 샤문 군대의 군복을 입혀서 2개 대대를 더 배치하기로 했지요 네》

하고 늙다리 일라흐가 꼴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휘둥그레 뜨고 멍멍히 서 있는 파이살을 대신하여 말을 받아 나섰다.

《그 뿐이겠습니까 허커티 씨, 요르단에도 군대를 좀 더 보낼려고 우리는 어제 영국 대사관의 라이스톤 공작 각하와 협의해서 후세인의 부수상을 바그다드에 불러다 놓았지요》

하고 좀살개 같이 조르르 달려 와서 허리를 굽신거리는 것은 누리 사이드였다.

《무엇이 어째! 라이스톤과 협의했다구? 집어 치우란 말요! 영국이 여기에 무슨 상관이요. 여기는… 여기는 미국의 땅이란 말요! 알겠소? 대 아메리카는 바로 여기다 발 하나를 디디고 서서 〃자유 세계〃 우에 군림하고 있단 말이요!》

하고 야단 법석하면서 탕탕 발을 구르는 바람에 기겁한 것은 이라크의 세 《미국 친우들》이였다.

자라목이 되여 한군데 움츠러 들어서 흘금흘금 허커티의 발만 훔쳐 보다가 저희들끼리 무어라고 소근거리더니 이윽고 무슨 신비한 것이나 발견한 듯이

《저 허커티 선생, 진흙탕에 발이 어지러워 집니다. 네》

하고 일라흐가 먼저 개구 선창을 하고 《구두가 다 못쓰게 되겠는데요》

하고 그럴사 하게 파이살이 걱정을 하는데

〈헤헤, 걱정마십쇼, 허커티 선생, 제 이제 곧 상공대신을 시켜서 새 구두를 마련해 오도록 하지요, 네, 이스탐불에 가시는데 그 구두 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헤헤》

하고 제 직분을 자랑해 보자는겐지 연신 여우 웃음을 짓는 것은 누리 사이드였다.

그래, 이라크 왕국 정부가 총동원하여 만든 새 구두는 지금 허커티의 침대 옆에 있다.

그는 만족한 웃음을 짓고 호화로운 침실로 들어갔다.

회의에 참가할 준비는 다 되였다.

이스탐불 회의에서 파이살이 외워야 할 원고는 이미 일라흐에 넘겨 주었고 그가 전번 회의 때보다는 곧 잘 읽는다는 소식도 이미 누리 사이드에게서 전화로 들었다.

허커티는 그 새 구두를 신고 이스탐불에서 토이기의 미녀와 춤을 추며 안카라의 이름난 포도주를 마시게 될 달콤한 꿈을 청하면서 잠에 들었다.

그러나 그는 깊은 잠에 들지는 못하였다.

《지배인 나으리! 큰 변 났습니다》라고 웨치는 황급한 소리와 바그다드의 거리를 울리는 요란한 총소리에 허커티는 펄쩍 뛰여 일어 났다.

《이게 무슨 변이요?》

《폭동입니다. 지배인 나으리》

시중 드는 종은 벌벌 떨기만 한다.

《무엇이 어째? 이 못난 자식아! 어서 내 구두를 가져와!》

그러나 종은 그 새 구두를 찾아 내지 못하였다.

《구두가 한 짝이 어디 간지 없습니다요, 나으리!》

《무어야? 이 늙은 빼다구야!》

허커티는 맨발로 뛰여 가서 유리문을 활짝 열었다.

콩볶듯 하는 총소리와 함께 《이라크 혁명 만세!》라는 군중의 웨침'소리가 들려 왔다.

《일라흐는 어떻게 돼서? 누리사이드는 어델 가고?》

허커티의 머리에는 전에 벌써 여섯번이나 이러한 폭동이 있을 때마다 누리 사이드가 녀자 옷에 몸을 감추고 무사히 죽엄의 마수에서 빠져 나오군 한 사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허커티의 이 목 쉰 소리에 대답이나 하는듯

《공민 여러분! 우리는 인민의 이름으로 이미 매국역적 일라흐와 녀자로 가장하고 도망치던 누리 사이드를 처단하였습니다. 모두 동원하여 파이살을 찾아 냅시다! 끝까지 혁명을 수행합시다》

하고 군중을 고무하는 랑랑한 해방군 전사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아이쿠, 마즈막야 마즈막…》

하고 허커티는 몸부림을 쳤다.

그는 문안에 갇힌 야수 모양으로 발광하면서 독기서린 두 눈을 부릅뜨고 바그다드 시 중심을 흐르는 찌그르강을 바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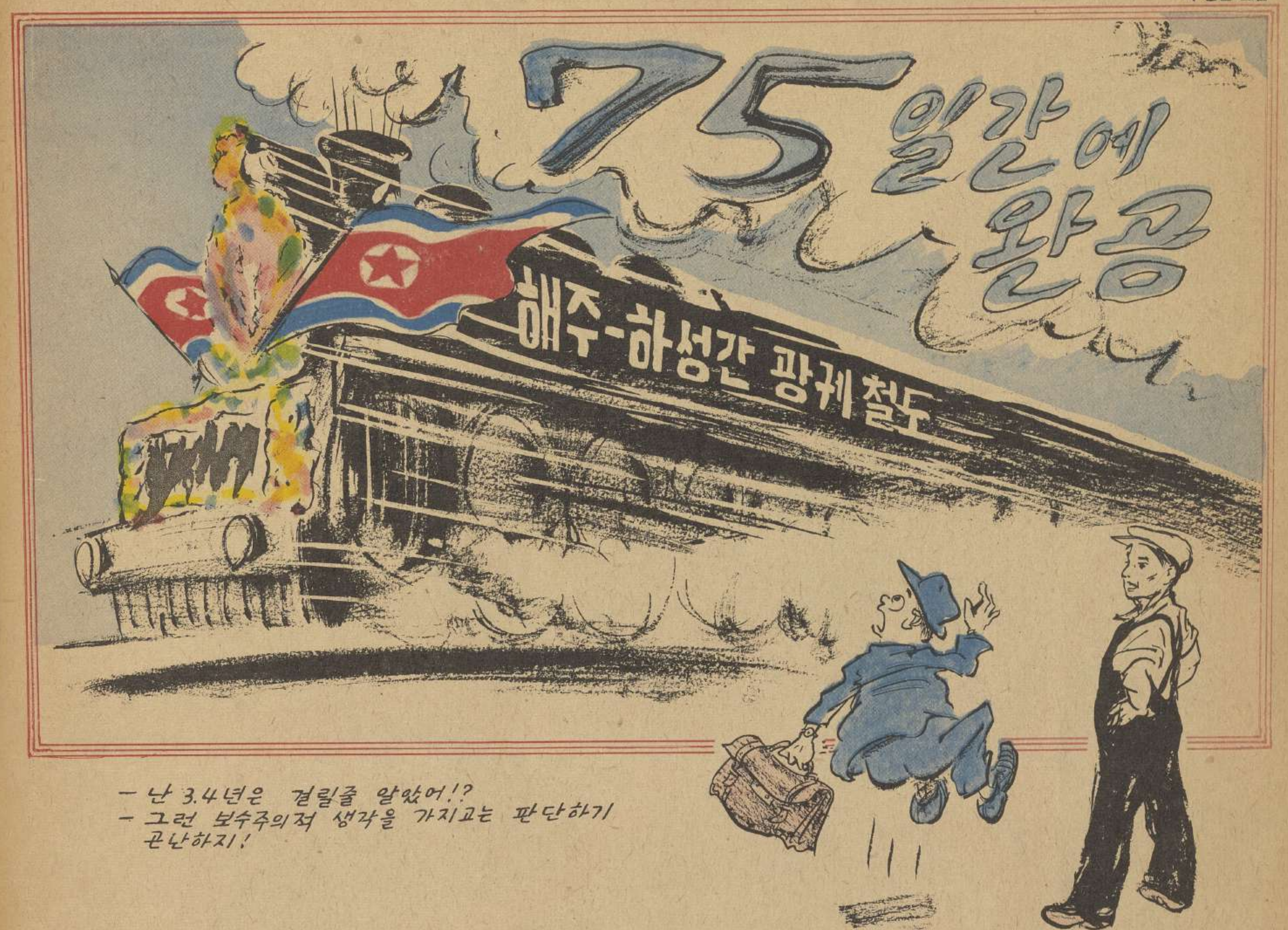
강반에 자리 잡은 하심 왕궁 광장에는 군중들이 물밀 듯이 모여들어 허커티의 눈에 몹시 낯익은 파이살의 옥좌를 불사르고 있는 것이 눈에 띠였다.

그리고 그 옥좌에는 방금 낯익히기 시작한 허커티 자신의 그 새 구두 한 짝이 올개미에 채워 매달리고 있었다.



## 기적에 놀랐다

백 인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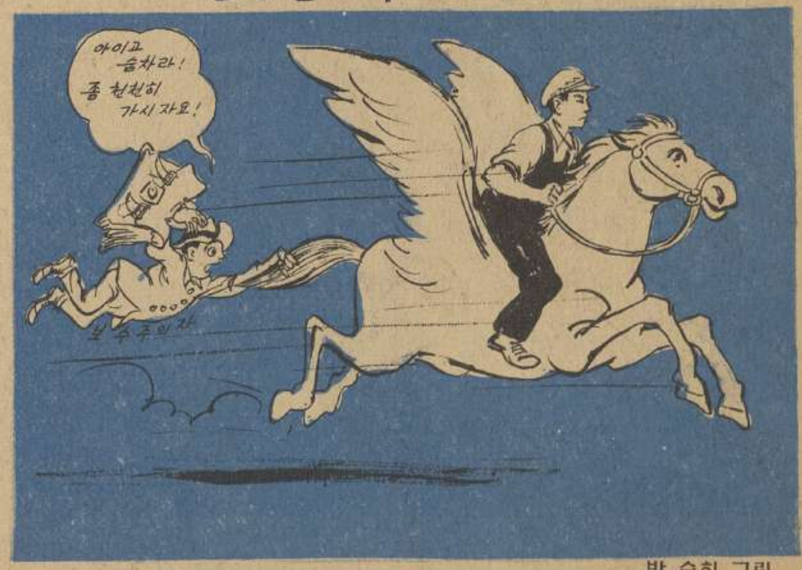



— 난 3.4년은 걸릴줄 알았어!?
— 그런 보수주의적 생각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곤난하지!

## 낡은 고집은 타파 되고야 만다

최 영근 그림

## 전진을 저애하는자




박 승히 그림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활 살 사 인쇄 1958. 9. 10 ㄱ- 74778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8. 9. 15 값(50원)

허 능택 그림